



##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공기업정책학 석사학위논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거주여건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일-생활 균형(Work-Life Balance) 정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2020년 8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기업정책학과

이 혁 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거주여건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일-생활 균형(Work-Life Balance) 정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지도교수 우 지 숙

이 논문을 공기업정책학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5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기업정책학과  
이 혁 재

이혁재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0년 6월

위 원 장     이 수 영     (인)

부위원장     최 태 현     (인)

위     원     우 지 숙     (인)

## 국문초록

2005년 6월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이 수립되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추진된 이후 2019년 2월 현재 이전대상 공공기관 총 153개 기관 중 152개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을 완료하였다.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 종사자들은 가정생활, 주거환경 등 거주여건에 커다란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거주여건 변화가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일-생활 균형(Work-Life Balance) 수준이 조절효과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시작되었다.

연구자료는 지방이전이 완료된 10개 혁신도시에 위치한 공공기관 및 혁신도시에 위치하지는 않지만 개별 이전된 공공기관 본사에 근무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수집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총 228명의 설문결과를 토대로 SPS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빈도분석, 상관분석 및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독립변수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거주여건 변화 중 가족동반 이전 여부를 제외한 생활근거지와 접근성과 이전지역 주거환경 인식은 공공기관 종사자의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조절변수인 일-생활 균형 요인은 하위 요인인 일-가정 균형, 일-성장 균형, 일-여가 균형 모두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만, 거주여건 변화와 삶의 만족도 간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보이지는 않았다. 다만, 표본을 기혼자만을 대상으로 변경하였을 경우, 일부 유의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이라는 주제를 정책효과 측면이나 조직관리 차원에서 보지 않고 기관 종사자들의 거주여건 변화와 삶의 만족도, 일-생활 균형과 같이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공공기관은 지방이

전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삶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격지근무 종사자들에게 대한 승진, 교육기회 확대 등 보상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혁신도시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

주요어 : 공공기관 지방이전, 거주여건 변화, 삶의 만족도, 일-생활  
균형

학 번 : 2013-22670

# 목 차

제 1 장 서 론 .....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분석 .....	4
제 1 절 공공기관 지방이전 .....	4
1. 공공기관 지방이전 개요 .....	4
2. 공공기관 지방이전 관련 선행연구 .....	7
제 2 절 삶의 만족도 .....	10
1. 삶의 만족도의 개념 .....	10
2. 삶의 만족도 관련 선행연구 .....	12
제 3 절 일-생활 균형 .....	14
1. 일-생활 균형의 개념 .....	14
2. 일-생활 균형 관련 선행연구 .....	16
제 4 절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21
제 3 장 연구 방법 .....	23
제 1 절 연구의 분석틀 .....	23
1. 연구 모형 .....	23
2. 연구문제 및 가설의 설정 .....	24
제 2 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	28
1. 지방이전에 따른 거주여건(독립변수) .....	28
2. 삶의 만족도(종속변수) .....	30
3. 일-생활 균형(조절변수) .....	31
제 3 절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	33
1. 설문지 구성 및 내용 .....	33
2. 자료 수집 및 분석방법 .....	34

제 4 장 실증분석 결과 및 해석 .....	36
제 1 절 일반적 특성 및 평가도구 검증 .....	36
1.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적 특성 .....	36
2. 연구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측정 .....	38
3. 주요 변인 기술통계 .....	40
4.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분석 .....	41
제 2 절 가설 검증 .....	42
1. 지방이전 거주여건의 삶의 만족도 영향 .....	42
2. 일-생활 균형의 조절효과 분석 .....	43
3. 소결 .....	53
4. 추가 분석 .....	55
제 5 장 결론 및 시사점 .....	58
제 1 절 연구 결과 .....	58
제 2 절 연구의 시사점 .....	59
제 3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	60
참고문헌 .....	62
부    록 .....	68

## 표 목차

[표2-1]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 주요연혁 .....	5
[표2-2] 이전대상 공공기관 현황 .....	6
[표2-3] 혁신도시 시즌1과 시즌2 비교 .....	7
[표2-4]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관한 선행연구 정리 .....	10
[표2-5] 삶의 만족도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정리 .....	13
[표2-6] 일-생활 균형 개념 정리 .....	16
[표2-7] 일-생활 균형 관련 선행연구 정리 .....	21
[표3-1] 거주환경 인식에 대한 조작적 정의 .....	30
[표3-2] 일-생활 균형 수준 척도 문항 .....	32
[표3-3] 설문지의 구성 .....	34
[표4-1]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적 특성 .....	37
[표4-2] 일-생활균형 측정도구 타당도/신뢰도 분석결과 .....	39
[표4-3] 기술통계 분석 결과 .....	40
[표4-4] 상관관계 분석 결과 .....	42
[표4-5] 지방이전 거주여건의 삶의 만족도 영향 분석결과 .....	43
[표4-6] 일-생활 균형의 조절효과 분석결과 .....	46
[표4-7] 일-가정 균형의 조절효과 분석결과 .....	48
[표4-8] 일-성장 균형의 조절효과 분석결과 .....	50
[표4-9] 일-여가 균형의 조절효과 분석결과 .....	52
[표4-10] 가설검증 결과 종합 .....	59



## 그림 목차

[그림3-1] 연구 모형 .....	23
[그림4-1] 일-성장균형 조절효과(기혼자만 분석) .....	57

## 부록 목차

[부록1] 설문지 .....	68
[부록2] 추가분석 결과 .....	73

# 제 1 장 서 론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요인은 가정생활, 주거환경, 직장생활, 대인관계, 자아실현 등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 주어진 상황 등에 따라 다양할 것이다. 그리고 어느 한 가지 요인 보다는 다양한 요인들이 서로 유기적이고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개인의 삶에 영향을 준다. 특히, 정보통신기술 및 이동수단의 발전에 따라 직장생활과 사생활의 경계가 모호해진 현대인들에게는 소위 ‘워라벨’로 일컬어지는 일-생활의 균형(Work-Life Balance)이 중요한 화두로 대두하고 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9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과 가정생활의 우선도를 묻는 항목에서 일을 우선시한다는 응답 비중은 42.1%로 2011년도 조사보다 10.3%p 감소한 반면 일과 가정생활이 비슷하다는 답변 비중은 44.2%로 2011년도 조사보다 10.2%p 증가하여 일-생활의 균형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꾸준히 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라 직업적 안정성과 경제적 보상은 물론 퇴근시간도 비교적 잘 지켜지는 공공기관의 경우 ‘신의 직장’이라는 별명을 얻고 취업준비생들 사이에서 공공기관 선호현상이 나타나고 있다.(시사위크, 구직자 “야근수당보다 ‘저녁 있는 삶’ 달라”)

그러나 2003년부터 추진된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은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가정생활, 주거환경 등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였다. 2005년 6월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이 수립·발표되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추진된 이후 2019년 2월 현재 이전대상 공공기관 총 153개 기관 중 152개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이로 인해 공공기관 종사자들 중 일부는 기존에 생활을 영위하던 연고지를 벗어나 지방으로 이주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 종사자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가족동반 이주 또는 주말부부의 형태로 가정생활이 변화되었으며, 대도시와의 접근성, 각종 편의시설 등 정주여건의 변화가 발생하였다.

실제 2018년 6월말 기준 이전 공공기관의 가족동반 이주율은 48% 수준이며(국회입법조사처, 2018), 국토교통부의 혁신도시 정주여건에 대한 만족도조사 결과(2017)에 따르면, 전반적인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52.4점에 불과하였다.

상식적으로 우리는 가족과 함께 거주하지 못하고 주말부부 생활을 하게 되거나 정주여건이 열악한 장소에서 생활할 경우 삶의 만족도가 저하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며, 이는 다수의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나주혁신도시에 위치한 한전 등 4개 기관을 방문한 전순옥 의원은 "가족과 함께 이주한 직원은 전체의 22.4%에 불과하고 77.6%가 '나홀로 이주자'인데 이를 방치하다보면 자칫 가족 해체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가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 의원은 "이렇게 급격한 변화를 겪는 직원들을 위한 심리 상담실 운영과 이주 환경 실태조사를 통한 근본 대책"을 촉구했다.(한국경제, 新 '기러기아빠'..나주혁신도시 나홀로 이주 심각)

생활여건이 좋지 않다는 말도 나왔다. 상가 임대료가 비싸 물가가 지나치게 높고 특성화 고등학교와 학원 같은 교육시설이 시급하다는 조언도 있었다. "아기를 위한 개인 소아과 대기 줄이 기본 1시간 반"이라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제기됐다. 한 공공기관 직원은 "주말마다 유령도시가 된다"며 "지방경제 살리려고 내가 희생되는 느낌"이라고 전했다. (서울경제, [혁신도시 10년을 진단한다] "서울 집 팔고 내려왔더니 급등..너무 후회")

하지만 이러한 믿음은 설부른 판단일 수 있다. 삶의 만족도는 지극히 개별적이며 주관적인 사안으로 특정 요인이 항상 한 가지 방향으로만 영향을 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주말에만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주말부부라도 평일 저녁에 누릴 수 있는 시간적 보상과 그에 따른 여가활동 및 자기개발 증가로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또는, 정주여건이 다소 열악한 지방으로 가족과 함께 이주한 경우라도 주거비용 절감에 따른 금전적 보상, 수도권 생활에서 경험할 수 없는 출퇴근 시간의 여유 등에 따라 가족과 함께 보내는 삶의 질이 향상된다면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오히려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거주여건 변화가 공공기관 종사자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일-생활의 균형의 정도에 따라 조절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거주여건 변화가 공공기관 종사자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특히 그 영향의 방향성과 크기가 일-생활의 균형 정도에 따라 어떻게 차별화되는지를 확인하는데 의의를 찾고자 한다.

##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인한 거주여건 변화가 조직구성원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일-생활 균형(Work-Life Balance)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에 따라 연구대상은 2014년도까지 지방이전이 완료된 10개 혁신도시에 위치한 공공기관 및 혁신도시에 위치하지는 않지만 개별 이전된 공공기관 본사에 근무하는 종사자 중 거주지를 이전<sup>1)</sup>한 자로 설정하였다. 2020년 3월 현재의 시점으로 볼 때 기관 이전 완료 후 최소 5년의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연구대상이 이전 후 거주여건 변화를 충분히 경험하고 이에 따른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없다고 여겨진다. 이들을 대상으로 거주여건 변화 요인과 일-생활 균형에 대한 중요도 및 만족도와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의식을 설문을 통해 측정하고 분석한다.

---

1) 기관 이전지역으로 혼자 이전(단독부임)하거나 가족과 함께 이전한 경우

##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분석

### 제 1 절 공공기관 지방이전

#### 1. 공공기관 지방이전 개요

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후 경제성장 과정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압축성장을 해 온 결과, 따른 부작용으로 수도권 과밀화와 수도권-지방 간 격차확대라는 국토의 불균형 발전 문제가 대두하였다. 이에 따라 수도권 집중의 근원적 해소와 자립형 지방화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정책의 일환으로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하였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2003년 6월 노무현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구 구상”을 통해 공공기관 지방이전 방침을 발표하면서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2004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정 및 2007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정부는 2005년 12개 시도지사 간 기본협약을 체결하였고, 지방이전에 반대하는 공공기관 노조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기본협약을 체결한 후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을 수립·발표하였다. 동 계획에 따르면 175개 공공기관<sup>2)</sup>을 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한 12개 광역시·도로 분산 배치하고, 이 중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되는 충남을 제외한 11개 시·도에 수준 높은 주거·교육·문화 등 정주환경을 갖춘 혁신도시를 건설하여 이전 공공기관을 입주시키기로 하였다.

이후 10개 혁신도시지구 지정,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수립, 용지보상

---

2) 공기업 선진화 방안 등으로 공공기관의 통폐합 및 부설기관 독립에 따라 이전대상 기관은 최종적으로 153개(혁신도시 115개, 개별이전 19개, 세종시 19개)로 조정됨

등을 거쳐 개별 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이 이루어졌으며, 2019년 2월 현재 이전대상 153개 기관 중 152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하였다.

[표2-1]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 주요연혁

연도	주요 내용
2003.6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방침 발표
2004.4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법적근거 마련
2004.8	공공기관 이전방안의 기본원칙 및 추진방향 발표
2005.5	정부와 12개 시도지사 간 ‘기본협약’ 체결
2005.6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수립·발표
2005.8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단장: 국토부 차관) 설치
2005.10	정부, 시·도, 이전기관 등으로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협의회’ 구성
2005.12	10개 혁신도시 입지선정 완료
2007.1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2007.4	10개 혁신도시지구 지정 완료
2007.5~ 2008.12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수립
2007.12~ 2014.12	개별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승인 및 변경 승인
2017.1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
2018.3	‘혁신도시발전추진단’ 출범(기존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2019.2	이전대상 공공기관 총 153개 중 152개 이전 완료

자료: 공공기관 지방이전추진단 홈페이지(<http://innocity.molit.go.kr>) 참조 재구성

이전대상 공공기관은 혁신도시 115개(부산 13개, 대구 11개, 광주·전남 16개, 울산 9개, 강원 12개, 충북 11개, 전북 12개, 경북 12개, 경남 11개, 제주 8개), 세종시 19개, 개별이전 19개(오송 5개, 아산 4개, 기타 10개)로 총 153개 기관이며, 기관 유형별로는 정부 소속기관 44개(혁신도시 32개, 개별이전 12개), 공기업 16개(혁신도시 13개,

개별이전 3개), 준정부기관 48개(혁신도시 44개, 개별이전 3개, 세종시 1개), 기타공공기관 45개(혁신도시 26개, 개별이전 1개, 세종시 18개)로 구분된다.

[표2-2] 이전대상 공공기관 현황

지역	계	정부소속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혁신도시	115	32	13	44	26
개별이전	19	12	3	3	1
세종시	19	-	-	1	18
전 체	153	44	16	48	45

자료: 국토교통부 자료 참조 재구성

정부는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자립적인 지역발전을 촉진하여 추진된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에 대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실제로 지방세 수입<sup>3)</sup> 및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율<sup>4)</sup>, 혁신도시 지역 인구<sup>5)</sup>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등 지역발전 효과가 일정 수준 가시화되고 있다.

하지만, 혁신도시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이 대부분 청사 신축비 등에 한정되고 예산지원도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지방정부는 재정여건 등을 이유로 혁신환경 조성에 대한 투자가 소극적임에 따라 정주여건 개선 및 도시발전이 지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이전 공공기관 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혁신도시 상생협의회’를 통해 확인되는 이전 공공기관의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의 대부분은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및 그 가족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관련된 것이다.

3) 10개 혁신도시 지방세 수입은 지방이전이 본격화되기 이전인 2013년 535억 원에서 2017년 3,292억원으로 증가

4) 신규채용 기준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율은 2012년 2.8%에서 2017년 14.2%로 상승

5) 10개 혁신도시 인구는 2014년 59,205명에서 2017년 174,880명으로 2.95배 증가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주거환경 개선, 부족한 문화시설 및 상업시설에 대한 확충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혁신도시 정주여건 만족도 조사(2017) 결과 전반적인 만족도는 52.4점(100점 만점) 수준이었으며, 이를 반영하듯 2018년 6월말 기준 가족동반 이주율은 48%에 불과하여 당초 기대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최근 정부는 기존 중앙정부 주도의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서 벗어나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혁신도시 발전을 모색하는 ‘혁신도시 시즌2’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표2-3] 혁신도시 시즌1과 시즌2 비교

구분	시즌1('05~'17)	시즌2('18~'30)
추진 주체	중앙정부 (Top Down 방식)	지방정부 (Bottom Up 방식)
정책 비전	수도권집중 완화 및 자립형 지방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新지역성장 거점 육성
추진 목표	공공기관 이전 완료	가족동반 이주율 제고, 삶의 질 만족도 향상, 지역인재 채용 확대, 기업입주 활성화
정책 대상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주민, 지방대학생, 혁신도시 입주기업
추진 과제	공공기관의 차질 없는 이전 이전기관 종사자 지원 수도권 종전부동산 매각	이전기관의 지역발전 선도, 스마트 혁신도시 조성, 산업 클러스터 활성화,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 추진체계 재정비

자료: 관계부처 합동, 「혁신도시 시즌2 추진방안」(2008.2)

## 2. 공공기관 지방이전 관련 선행연구

### 가. 지방이전 이전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이전인 2000년대 연구들은 대부분 거시적 차원의 경제적 효과에 초점을 두거나,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한 국토의 효율화 방안 혹은 선진국 사례와의 비교 등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송건섭·이곤수(2008)는 지역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하여 대구·경북지역의 혁신도시 지역에 입주하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대구지역과 경북지역의 총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 및 고용유발 효과가 발생하여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측하였다.

반면, 김인회(2005)는 공공기관 이전으로 수도권에서의 순 생산감소가 비수도권 지역의 순 생산증가를 압도하여 전국적으로는 순 생산감소와 고용 감소를 유발하여 국가적으로 네거티브 썸(negative sum)의 효과를 초래할 것으로 분석하였다.

한편, 김태환(2004)은 공공부문의 지방 분산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프랑스 사례를 분석하면서 공공기관 이전 정책이 지방도시의 성장, 낙후지역의 고용기회 확대 등 전반적인 국토균형발전전략과 전략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나. 지방이전 이후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2014년 이후<sup>6)</sup>에는 이전 정책의 효과성과 지방이전이 지역에 미치는 실증적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으며, 최근에는 공공기관 조직원의 조직몰입, 직무태도 등 기관 이전이 개인적 차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일부 진행되었다.

국회예산정책처(2016)는 기관 이전현황, 직원 이주실태, 지역활성화 효과, 업무효율성 변화, 산학연 클러스터 추진 성과 등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연계·협력기반 강화 등의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민곤 외(2017)는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가 입지한 지역을

---

6) 이전 완료된 공공기관 수는 각 연도말 기준 2012년 13개, 2013년 32개, 2014년 79개, 2015년 111개로 2014년 이후부터 본격적인 이전이 진행되었음

대상으로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경제성장에 대한 영향을 연구하였는데, 공공기관 이전이 지방세입 증가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쳤지만, 지역총생산(GRDP) 및 기반고용비율의 증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오민지 외(2017)는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으로 중앙공무원의 이전유형 변화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근무지 이전에 따른 일-생활 균형 변화가 직무만족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판단하였다.

송민경(2019)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업무효율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지방이전이 공공기관의 소통비용 및 인력관리 측면의 비효율을 유발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지방이전이 노동생산성 저하와 경영평가 중 주요사업성과 점수 및 고객만족도 조사 점수를 일부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한편, 지방이전에 따른 일-생활의 균형 변화 측면에서 조직몰입과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로서 김유진(2016)은 직원들의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인이 일-성장 균형임을 확인하였으며, 반대로 이인엽(2018)은 지방이전에 따른 일-성장 균형 변화가 직무만족에는 영향을 주지만 조직몰입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두 연구 모두 일-가정 균형은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으며, 김유진(2016)의 연구에서는 일-여가 균형이 정서적, 지속적 몰입에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천지은(2017)은 지방이전을 경험한 공공기관 종사자의 어메니티 인식이 종사자들의 가족동반이주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가족동반이주 여부에 대하여 자녀교육, 문화소비, 정주환경, 보건의료 어메니티 중요도가 부(-)의 영향을 미치며, 자녀교육, 문화소비, 자연환경, 보건의료 어메니티 만족도가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4]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관한 선행연구 정리

연구자	주요 내용
송건섭·이곤수(2008)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대구지역과 경북지역의 총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 및 고용유발 효과 발생
김인회(2005)	공공기관 이전으로 수도권에서 순생산감소 발생하여 국가 전체의 경제적으로 부정적 효과 발생
김태환(2004)	공공기관 이전 정책이 지방도시 성장, 낙후지역 고용 확대 등 전반적 국토균형발전 전략과 연계 필요
김민곤 외(2017)	공공기관 이전이 지방세입 증가에는 긍정적이거나, 지역총생산 및 기반고용비율 증가에는 영향 없음
오민지 외(2017)	중앙정부 지방 이전에 따른 일-생활 균형 변화가 직무만족에 부정적
송민경(2019)	공공기관 이전이 업무효율을 떨어뜨리고 경영평가 중 주요사업성과 및 고객만족도 점수 감소 유발
김유진(2016)	지방이전에 따른 일-성장 균형 변화 → 조직몰입에 긍정적 지방이전에 따른 일-여가 균형 변화 → 조직몰입에 부정적
이인엽(2018)	지방이전에 따른 일-성장 균형 변화 → 직무만족에 긍정적 → 조직몰입 영향 없음
천지은(2017)	지방이전 종사자의 어메니티 중요도↓, 어메니티 만족도↑ →가족동반이주 가능성↑

## 제 2 절 삶의 만족도

### 1. 삶의 만족도의 개념

삶의 전반에 대한 정서적 만족감을 나타내는 포괄적 개념의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는 학자의 연구에 따라 삶의 질(life quality),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 행복(happiness) 등 유사한 개념의 다양한 용어로 표현되고 있다(Campbell et al., 1976; Diener, 2009; Frey & Stutzer, 2002). 삶의 만족도에 대한 일관되고 합의된 정의는 없지만 대체로 객관적 관점과 주관적 관점, 그리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구분하여 정의할 수 있다(하혜수, 1996).

Neugarten et al.(1961)은 삶의 만족도 개념을 최초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삶의 만족도를 일상생활의 활동에서 기쁨, 생활에 대한 의미와 책임감, 목표성취, 낙천적 태도와 감정 등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는 태도를 의미한다고 규정하였다. Diener & Lucas(1999)는 삶의 만족도를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 느끼는 주관적 만족감으로 정의하였다. 이상의 주관적 관점은 객관적 요소를 배제하고 개인의 인지와 판단을 통한 삶의 만족도라 할 수 있다.(황성호·이희선, 2019)

반면, Veenhoven(2002)은 개인의 환경요인에 의해 삶의 만족도가 결정된다고 보고 주관적 관점에서 객관적 영역으로의 확장 필요성을 강조하며 물리적 요인의 영향력을 중요하게 보았다. 김광웅 외.(1991)는 삶의 질을 인간의 만족스러운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인 삶의 조건으로 정의하며 주관적인 삶의 질은 사람에 따라 다르고, 사람의 비교준거나 가치체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주관적인 만족도의 측정보다는 객관적인 상태를 통해 파악하는 것이 보다 일관성이 높다고 주장하였다.(하혜수, 1996)

마지막으로 삶의 만족도를 개인의 심리상태와 일상생활, 주변의 환경, 국가의 경제성장 등 주관적 관점과 객관적 관점을 모두 포괄하여 정의하는 견해이다.(이달곤, 1990). 이와 같은 통합적 관점은 삶의 만족도에 있어 개인과 사회적 측면, 나아가 국가적 영역까지 모두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한다.

이상 여러 견해를 종합해 볼 때, 삶의 만족도는 객관적 요소와 주관적 요소를 모두 고려할 때 균형을 갖췄다고 보여 질 수 있겠으나, 포괄적 측정 시 중요 핵심과 변화된 요인들을 놓칠 수 있다(황성호·이희선, 2019). 또한, 최근의 삶의 만족도 개념은 객관적 지표 중심에서 벗어나 주관적 지표 중심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신체적 건강, 경제적 상태 등의 객관적 지표와 함께 정서적 요인, 정신적인 건강,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망 등 주관적 지표를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다(정순돌·김정원, 2010).

이에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삶의 만족도는 주관적 만족감이며, 이는 자신의 삶에 대한 주관적 평가로서 잘 살고 있다는 전반적 삶의 만족과 우울 및 즐거움에 이르는 느낌에 대한 전반적 판단으로 정의한다.

## 2. 삶의 만족도 관련 선행연구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인구사회학적 요인, 신체와 정신 건강, 경제적 요인, 사회적 관계 등 다양한 요인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인구사회학적 요인에서는 성별(최종명, 2001; 박기남, 2004; 김은영·박정윤, 2013), 교육수준(이은아, 2007; 정명숙, 2005), 혼인상태(박희봉·이희창, 2005) 등이 삶의 만족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다. 특히, 김의철 외(2000)와 최연희(2005)는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가족과의 동거가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혔다.

경제적 요인에서는 일반적으로 경제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강종필·윤지영, 2017; 구철회, 2015; 우재영, 2013), 정서적 요인에서는 자존감이 삶의 만족도에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김연희·김기순, 2002; 김애련, 2011). 또한, 사회적 지지나 사회활동도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가족관계(이준상·김향아, 2017; 정여진·안정신, 2010), 사회적지지(강종필·윤지영, 2017), 사회활동(전명진·문성원, 2016) 등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박선숙, 2019)

주거환경 또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라는 주장은 Galster(1987)의 연구에 제시되어 있는데, 이를 토대로 이춘호(2001)과 장소영(1998)은 각각 수도권 및 성남시 거주민을 대상으로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주거환경과 삶의 만족도가 서로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 임준홍·홍성호(2014)는 충청남도 거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환경오염, 안전,

문화예술·의료시설 접근성 등이 행복감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진장익 외(2017)는 서울시 통근자들의 행복과 통근시간에 대한 관계를 이론적 논의와 더불어 실증적으로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 시장의 기능에 의해 통근으로 인한 비용이 노동시장과 주택시장에서 보상되어야 한다는 도시경제이론에 반해 통근시간의 증가는 통근자들의 삶의 만족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일-생활 균형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도 최근 증가하고 있다. 김난주·권태희(2009)는 기혼여성의 일-가정 균형과 삶의 질과의 상호관계를 연구하여 일-가정 양립 갈등이 적을수록 삶의 질이 높은 것을 입증하였다. 김경미(2017)는 맞벌이 가정 행복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는데 직무만족도, 일-가정양립 제도 인식, 부부의사소통도, 일-가정양립이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민경선(2018)은 1988년부터 1994년 출생자를 ‘위라벨세대’로 정의하고 이들 중 안정적인 직장과 소득이 있는 상용직 근로자의 경우 여가시간이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표2-5] 삶의 만족도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정리

요인	연구자
성별	최종명(2001), 박기남(2004), 김은영·박정윤(2013)
교육수준	이은아(2007), 정명숙(2005)
혼인상태	박희봉·이희창(2005)
경제 수준	강종필·윤지영(2017)
자존감	김연희·김기순(2002), 김애련(2011)
가족관계	이준상·김향아(2017), 정여진·안정신(2010)
사회적지지	강종필·윤지영(2017)
사회활동	전명진·문성원(2016)
가족과의 동거	김의철 외(2000), 최연희(2005)
통근시간	진장익 외(2017)
주거환경	Galster(1987), 이춘호(2001), 장소영(1998), 임준홍·홍성효(2014)
일-생활 균형	김난주·권태희(2009), 김경미(2017), 민경선(2018)

## 제 3 절 일-생활 균형(Work-Life Balance)

### 1. 일-생활 균형의 개념

일-생활 균형(Work-Life Balance)이란 용어는 1970년대 영국 취업 여성단체(Working Mother's Association)가 기혼 여성들이 일과 가정 사이에서 겪는 여러 갈등과 문제를 극복하고, 일과 가정 생활의 양립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는 요구로서 사용하기 시작했다(유홍준 외, 2018). 이에 따라 국내외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정부 및 기업의 정책은 대부분 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일과 가정 간 양립 갈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어졌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이 개념은 단순히 여성의 일과 가정 간의 갈등해소라는 협의에서 나아가 성별 및 기혼 여부의 구분 없이 일과 생활의 영역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다(오현규·박성민, 2014; 장수정, 2007; 김명희, 2014).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대 이후 일과 생활이라는 확장적 개념에 대해 학계를 중심으로 관심이 높아져 왔다. 강혜련(2006)은 국내의 가족친화정책이 대부분 보육에 초점이 맞춰져 왔으며 이는 정책의 본질을 모성보호라는 협의적 개념에 한정되게 만든다고 비판하면서 정책의 본질을 일과 삶의 조화라는 보다 포괄적 개념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Marks & MacDermid(1996)은 일-생활 균형 개념을 서로 다른 삶의 역할(자아(self), 근로자, 부모 또는 배우자 등)에 대해 동일하게 관여하는 역할 균형(role balance) 측면에서 설명하였고, Greenhaus et al.(2003)은 삶의 각 영역에 동일한 수준의 주의, 관심,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라 정의하여 두 연구 모두 양적인 측면의 동등한 배분 개념을 가정하였다.

이에 반해 Tausing & Fenwick(2001)과 Guest(2001)는 일-생활 균형을 일과 일 외적인 영역 간의 지각된(perceived) 균형감으로

정의하면서 양적인 분배보다는 자신이 보다 가치 있다고 판단하는 영역에 충분한 시간, 에너지를 할애하는 질적인 분배가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비슷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김정운 외(2005)의 연구를 차용하여 일-생활 균형을 양적 분배보다는 개인이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질적 분배에 초점을 맞추고, 일과 일 이외 영역에서 시간과 심리적·신체적 에너지를 적절히 분배함으로써 삶에 대한 통제감을 가지고, 삶에 대해 만족스러워 하는 상태라 정의하고자 한다.

한편, 일-생활 균형과 관련한 연구에서 또 다른 중요한 이슈 중 하나는 일과 생활의 어떠한 영역 간의 균형인가와 관련된 문제이며, 이는 결국 생활의 영역 중 어떠한 부분이 중요한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개인마다 삶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삶의 주요 영역을 분류하는 기준에도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

독일의 자기경영 전문 컨설턴트인 마르코 폰 뮐히하우젠(2003)은 생활의 영역 중 관계(가족, 친구, 네트워크), 건강, 심리상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Thompson & Bunderson(2001)은 가정, 지역, 여가의 중요성을, Quick et al.(2004)은 가정, 자아의 중요성을, Kofodimos(1993)은 사랑, 놀이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김정운 외, 2005; 김유정, 2016).

이렇듯 생활의 영역에서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다룰 것인지는 연구자마다 다양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영역은 가정과 관련된 영역이라 할 수 있다. 가정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일-생활 균형 개념이 여성의 일-가정 균형에서 비롯된 것을 감안할 때 생활의 영역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며, 기업과 정부에서 마련한 출산휴가,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각종 보육정책 등도 결국 일-가정 균형과 관련된 것들이라 할 수 있다.

가정의 영역 다음으로 최근 들어 일-생활 균형 관련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영역은 개인의 성장 및 자기계발의 영역과 친구관계, 취미활동 및 놀이활동 등을 포괄하는 여가의 영역이라 할 수 있다. Maslow(1954)는



인간이 추구하고자 하는 최상의 욕구는 스스로를 성장시키고자 하는 자아실현의 욕구라 하였다. 실제로 일과 가정에 대부분의 시간과 에너지가 소비되는 경우에도 성장욕구의 충족은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김승희·김선미, 2013; 손영미·박정열, 2014)가 있으며, 최근 조혼인율 감소<sup>7)</sup>에 따라 미혼 근로자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직장과의 성장 간 관계의 중요성은 날로 증대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 경제적 여유가 증대되고,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제한함에 따라 사회적으로 직장과의 여가 간 균형 문제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일-생활 균형 중 생활의 영역을 가정, 성장, 여가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표2-6] 일-생활 균형 개념 정리

연구자	일-생활 균형 개념
Marks & MacDermid(1996)	서로 다른 삶의 역할(자아, 근로자, 부모, 배우자 등)에 대해 동일하게 관여하는 역할 균형(role balance)
Greenhaus et al.(2003)	삶의 각 영역에 동일한 수준의 주의, 관심, 시간 할애
Tausing & Fenwick(2001) 등	일과 일 외적인 영역 간의 지각된(perceived) 균형감
김정운 외(2005)	일과 일 이외 영역 간 시간과 심리적·신체적 에너지의 적절한 분배로 주관적인 만족감을 느끼는 상태

## 2. 일-생활 균형 관련 선행연구

일과 생활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로는 역할 갈등 이론(role conflict theory)과 전이 이론(spillover theory)이 있다. 역할 갈등 이론(role conflict theory)은 개인이 서로 다른 영역들 사이에서

7) 통계청 인구동향조사(2018) 결과, 인구 1천명당 혼인건수를 의미하는 조혼인율은 2009년 6.2에서 2018년 5.0으로 감소

양립할 수 없는 역할을 요구받아 역할 간에 충돌이 발생한다고 보는 이론이다. 즉, 어느 한 개인이 직장 근로자임과 동시에 가정의 일원, 개별적 자아(self)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대되는 역할과 그 결과가 일치하지 않음으로써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전이 이론(spillover theory)은 한 영역에서의 행동과 감정이 다른 영역의 행동과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이다. 즉, 가정(또는 직장)에서 형성된 긍정적 감정이 직장(또는 가정)에서의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 전이효과와 반대의 경우에 나타나는 부정적 전이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 일과 생활의 영역은 서로 완전히 단절될 수 없기 때문에 부정적 전이효과를 최소화하고 긍정적 전이효과를 높이는 것이 개인 및 조직의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그간 국내외에서는 일-생활 균형에 대한 다양한 선행연구를 실시하였다. 선행연구를 정리해 보면 크게 일-생활 균형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와 일-생활 균형의 결과 및 영향에 관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 1) 일-생활 균형의 결정요인

이희미·김영진(2009)는 수도권 민간기업과 공공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일과 삶 사이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차원과 개인차원의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조직차원에서는 복지제도보다는 업무량과 업무효율, 그리고 일과 삶 균형에 대한 배려적 리더십이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개인차원에서는 가정생활과 여가생활에 대한 개인의 효과적 관리가 일과 삶의 갈등을 감소시키며, 개인의 여가중시 가치관이 강할수록 일과 삶의 갈등을 높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경혜·장미나(2009)는 기혼근로자들이 지각하는 일-가족 균형수준 및 관련요인(가정요인, 직장요인)에 있어서의 성별 차이를 연구하였는데, 당초 기대와 달리 남성보다는 오히려 여성의 일-가족 균형수준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남녀 모두 가정요인으로 배우자의 지지 정도가,

직장요인으로서는 업무량이 일-가족 균형수준에 유의미하게 작용하였다. 전반적으로는 일-가족 균형수준에 가정요인보다는 직장요인이 더 높은 설명력을 나타낸 것으로 보았다.

한편, 양소남(2011)은 스스로가 일-가정 간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느끼는 10명의 맞벌이 여성을 대상으로 성공요인에 대한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분석 결과 모든 참여자들이 일과 가족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하기 위해 매 순간 두 영역을 오고가며 협상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가족과의 정서적 유대, 평등하고 협력적인 배우자와의 관계, 자기계발과 양육현실 간의 간극조정, 맞벌이에 대한 자부심, 직장가정의 경계관리, 효율적 시간활용,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가족친화적 근무제도, 가족구성원의 지원 등이 두 영역을 양립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한편, 손영미 외(2011)는 53개 중앙정부 부처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들의 일-생활 균형 수준을 확인하고 이에 미치는 조직변수(지원제도, 조직문화)와 개인변수(WLB 신념, 삶에 대한 시간활애율)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중앙공무원의 전반적인 일-생활 균형 수준은 소속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나, 일-가정 균형에는 기혼자가 미혼자에 비해, 남성이 여성에 비해 그리고 40대가 다른 연령대(특히 20대)에 비해 균형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조직변수와 개인변수의 영향력 크기는 삶에 대한 시간활애율, WLB 신념, WLB 조직문화 순으로 조직변수보다는 개인변수가 영향력이 더 크다는 결론이 도출되어 한경혜·장미나(2009)의 연구와 반대의 결과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빈미영·손실기(2019)는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통근 목적지별(서울시, 경기도 거주지 내 시·군, 경기도 거주지 외 시·군) 일과 삶의 균형 정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는데, 상대적으로 교통관련 변수에 비해 웰빙 관련 변수(건강, 여가생활 등)가 일과 삶 균형에 더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경기도 거주지 외 시·군 출퇴근자는 대중교통이동 만족도가, 서울시 출퇴근자는 통근소요시간이 일과 삶의

균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 2) 일-생활 균형의 결과 및 영향

일-생활 균형의 결과 및 영향에 대한 연구로는 주로 일-생활 균형이 조직 차원에서 직무만족이나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과 개인 차원에서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가 많았다.

박경환(2012)은 기혼 여성관리자를 대상으로 일-가정 관계가 관리능력, 직무만족, 조직만족 및 삶의 만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특히, 일-생활 균형을 전이 이론(spillover theory)에 근거하여 ‘일↔가정’ 양방향의 긍정적(촉진), 부정적(갈등) 전이효과 유형에 따라 4가지<sup>8)</sup>로 구분하였으며, 분석 결과 일→가정 촉진 및 가정→일 촉진이 관리역량과 조직몰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일→가정 촉진이 높을수록, 일→가정 갈등이 낮을수록 직무만족에 긍정적 영향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예지 외(2016)는 한국생산성본부(KPC)의 ‘한국 직장인 멘탈 생산성 측정도구 개발 및 타당도 검증’ 서베이 자료를 활용하여 일과 삶의 균형이 조직효과성(구성원의 직무성과 및 혁신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직무 만족과 생활 만족의 매개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특히, 직무 및 생활 만족 간에는 정(+)적 교호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져 직무 만족만큼 생활에 대한 만족 역시 조직 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한편, 서중수·고희금(2010)은 대구지역 비영리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개인특성 변수와 직업특성 변수, 일-생활 균형 정도가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의 정도를 측정한 결과, 일-생활 균형 정도가 생활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으며, 이 밖에 가족지지, 동거가족형태, 직무자율성, 개인관계망지지 등의 변수가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밝혔다.

---

8) 일→가정 촉진, 가정→일 촉진, 일→가정 갈등, 가정→일 갈등

이재완·강혜진(2018)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조사한 ‘2018 삶의 질 여론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일-생활 균형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효과와 이들 관계에서 세대별 차이가 존재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일-생활 균형은 삶의 만족에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20대에 비해 연령이 높은 세대가 삶의 만족은 낮았지만 일-생활 균형이 높아질수록 삶의 만족이 더 급하게 상승한다는 결과를 도출하여 일-생활 균형 정책 추진 시 세대별로 다른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해외 연구로서 Haar et al.(2014)은 말레이시아, 중국,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등 7개 문화권의 1416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생활 균형이 직무 만족과 정신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 일-생활 균형은 전반적으로 모든 문화권에 걸쳐 직무 및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관계를 보이며, 불안감 및 우울감에 부(-)의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높은 수준의 일-생활 균형은 집단주의보다 개인주의 문화에 속한 개인과 성평등 인식이 높은 문화권에 속한 개인의 직무 만족과 삶의 만족도에 상대적으로 긍정적 영향력이 높게 나타나 개인주의/집단주의 문화와 성평등 문화에 따른 조절효과를 보였다.

이렇듯 일-생활 균형의 결과 및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 대부분은 일-생활 균형이 직장에서의 직무만족, 조직몰입 등과 개인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7] 일-생활 균형 관련 선행연구 정리

연구자	일-생활 균형의 결정 요인
이희미·김영진(2009)	(조직차원) 업무량, 업무효율, 배려적 리더십 (개인차원) 가정/여가생활에 대한 관리, 여가중시 가치관
한경혜·장미나(2009)	업무량(직장요인), 배우자의 지지정도(가정요인)이 유의하며, 직장요인 영향력이 가정요인보다 큼
양소남(2011)	가족과의 정서적 유대, 협력적 배우자 관계, 자기계발과 양육현실 간 간극조정, 효율적 시간활용, 가족친화적 근무제도
손영미 외(2011)	요인별 영향력 크기는 1) 생활을 위한 시간 할애율, 2) WLB 신념, 3) WLB조직문화 순으로 개인요인의 영향이 더 큼
연구자	일-생활 균형의 영향
박경환(2012)	일↔가정 간 긍정적 전이가 관리역량, 조직몰입에 (+) 영향. 일→가정의 긍정적 전이가 직무만족에 (+) 영향.
정예지 외(2016)	일과 삶 균형이 조직 구성원의 직무성과와 혁신행동에 (+) 영향을 미치며 그 과정에서 직무만족과 생활만족의 매개효과 존재
이재완·강혜진(2018)	일-생활 균형은 삶의 만족에 (+) 영향을 주며, 연령이 높을수록 일-생활 균형의 긍정적 효과가 높음.
Haar et al.(2014)	일-생활 균형은 모든 문화권에 걸쳐 직무 및 삶의 만족도에 (+)의 영향을 주며, 개인주의/집단주의 문화와 성평등문화에 따라 조절효과를 보임.

## 제 4 절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관한 연구들은 지방이전으로 인한 정책 효과성,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기관의 성과 등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 공공기관 조직원 개인 차원에 대한 영향도 조직몰입 또는 직무만족 등 조직 내 인적자원관리(HRD) 측면에서의 연구 위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비교하여 보다 개인적이고 주관적 측면에 초점을 맞춰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인한 개인의 거주여건 변화가 삶에 대한 만족도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기존의 일-생활 균형에 대한 연구들은 일-생활 균형을 독립변수 또는 종속변수로 상정하고 이와 관련된 요인 또는 결과에 주목했다면,

본 연구는 일-생활 균형 정도를 일-가정, 일-성장, 일-여가의 영역으로 구분하고 조절변수로서 지방이전에 따른 삶의 변인과 삶의 만족도 간 관계를 강화 혹은 약화시키는지 살펴봄으로써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높였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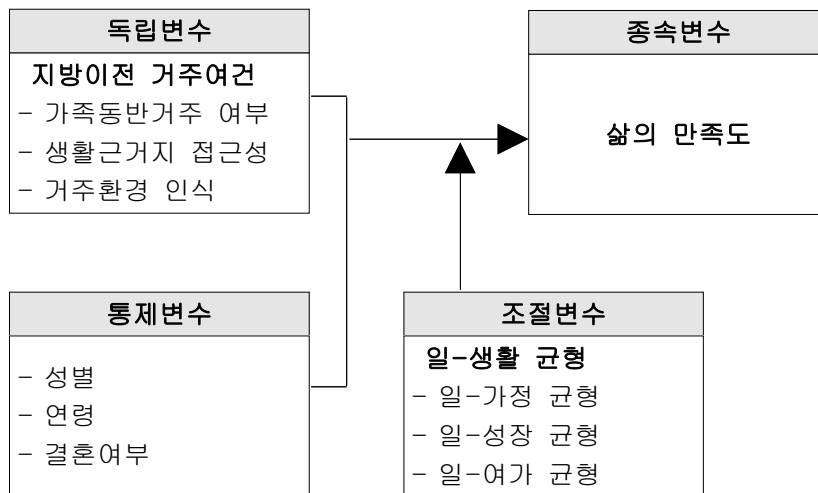
## 제 3 장 연구 방법

### 제 1 절 연구의 분석틀

#### 1. 연구 모형

본 연구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인한 거주여건 변화가 조직구성원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일-생활 균형(Work-Life Balance)이 거주여건 변화와 삶의 만족도 사이에서 미치는 조절효과를 파악하고자 한다. 삶의 만족도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교육/경제수준, 자존감, 사회적지지 등 다양한 변수들이 있지만 이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라 조직원의 삶에 가장 큰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가족 동반거주 여부, 생활근거지 접근성 및 근무지역 거주환경 인식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조절변수는 일-생활 균형을 바탕으로 하위 요인으로 다수의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일-가정의 균형, 일-성장의 균형, 일-여가의 균형으로 구분하였다.

[그림3-1] 연구 모형





## 2. 연구문제 및 가설의 설정

위 연구 모형에 나타나는 여러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와 가설을 설정하였다.

### 1) 가족 동반거주 여부와 삶의 만족도

국회입법조사처(2018)가 조사한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직원 이주현황 결과를 보면 2018년 6월말 기준 전체 공공기관 임직원(독신·미혼자 제외) 중 가족과 동반 이주한 비율은 48.0%이며, 단신 이주한 비율은 44.8%로 파악되었다<sup>9)</sup>. 즉,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의 상당수가 소위 ‘주말부부’를 경험하고 있는 셈이다.

주말부부에 대한 선행연구(최정혜, 2002; 백지애·최수찬, 2006)를 살펴보면 근로자의 ‘비동거적’ 직장생활로 인해 가족 간의 역할갈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직장의 지방이전으로 인해 비롯된 거주여건 변화 중 가족 동반거주 여부가 종사자의 삶의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연구문제 1>을 설정하였으며,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가족 동반거주가 비동반거주에 비해 삶의 만족도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보고 아래와 같은 <가설 1>을 설정 하였다.

연구문제 1 : 가족 동반거주 여부가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가설 1> 가족 동반거주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삶의 만족도가 더 높을 것이다.

---

9) 나머지 7.2%는 근무지로 이주 없이 생활근거지에서 출퇴근하는 비율

## 2) 생활근거지 접근성과 삶의 만족도

생활근거지란 사전적 의미로 ‘생활의 근거로 삼는 곳’이다. 이는 개인의 일상생활이 상호 연계된 공간 범위를 의미하며 개인의 주관적 판단을 통해서만 파악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생활근거지 개념을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가족·친지·친구들이 주로 거주하거나 본인이 오랜 기간 거주한 경험으로 가장 친밀함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지역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라 거주지역이 기존의 생활근거지에서 벗어나 낯선 환경에서 살게 되었을 경우 생활근거지와 의 접근성은 삶의 만족도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 판단하여 <연구문제 2>를 설정하였다.

아직까지 생활근거지와 의 접근성에 관련된 연구결과는 없으나, 통근시간 증가가 개인의 행복감이나 일-생활 균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진장익 외, 2017; 빈미영·손슬기, 2019)를 비추어 볼 때, 생활근거지 접근성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가정하고 아래 <가설 2>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2 : 근무지역과 생활근거지와 의 접근성이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가설 2> 생활근거지까지의 이동시간이 짧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 3) 근무지역 거주환경 인식과 삶의 만족도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혁신도시 정주여건에 대한 만족도조사(2017) 결과, 전반적인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52.4점에 불과하였으며, 분야별로는 주거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58.9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교육 환경 50.9점, 편의·의료서비스 환경 49.9점, 여가활동 환경 45.2점,

교통 환경 44.5점 순으로 만족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당초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이 지방이전 대상이었음을 감안할 때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상당수가 과거 수도권 등 대도시에서 거주했거나, 현재도 거주하고 있을 것이라 쉽게 짐작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대도시 거주자가 지방 소재 혁신도시에서 거주하게 됨으로써 느끼는 거주환경 인식이 삶의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연구문제 3> 및 <가설 3>을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3 : 근무지역 거주환경 인식이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가설 3> 거주환경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삶의 만족도는 높을 것이다.

#### 4) 일-생활 균형의 조절효과

연구 목적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일-생활 균형과 그 하위 요인들이 거주여건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어떠한 조절효과를 보이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춰 <연구문제 4>와 <가설 4>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4 : 거주여건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가 일-생활 균형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

연구문제 4-1 : 거주여건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가 일-가정 균형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

연구문제 4-2 : 거주여건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가 일-성장 균형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

연구문제 4-3 : 거주여건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가 일-여가 균형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

<가설 4-1> 일-생활 균형은 가족 동반거주의 경우와 삶의 만족도 간 정(+)의 영향관계를 강화시킬 것이다.

<가설 4-2> 일-생활 균형은 생활근거지까지의 소요시간과 삶의 만족도 간 부(-)의 영향관계를 약화시킬 것이다.

<가설 4-3> 일-생활 균형은 거주환경 인식과 삶의 만족도 간 정(+)의 영향관계를 강화시킬 것이다.

<가설 4-4> 일-가정 균형은 가족 동반거주의 경우와 삶의 만족도 간 정(+)의 영향관계를 강화시킬 것이다.

<가설 4-5> 일-가정 균형은 생활근거지까지의 소요시간과 삶의 만족도 간 부(-)의 영향관계를 약화시킬 것이다.

<가설 4-6> 일-가정 균형은 거주환경 인식과 삶의 만족도 간 정(+)의 영향관계를 강화시킬 것이다.

<가설 4-7> 일-성장 균형은 가족 동반거주의 경우와 삶의 만족도 간 정(+)의 영향관계를 강화시킬 것이다.

<가설 4-8> 일-성장 균형은 생활근거지까지의 소요시간과 삶의 만족도 간 부(-)의 영향관계를 약화시킬 것이다.

<가설 4-9> 일-성장 균형은 거주환경 인식과 삶의 만족도 간 정(+)의 영향관계를 강화시킬 것이다.

<가설 4-10> 일-여가 균형은 가족 동반거주의 경우와 삶의 만족도 간 정(+)의 영향관계를 강화시킬 것이다.

<가설 4-11> 일-여가 균형은 생활근거지까지의 소요시간과 삶의 만족도 간 부(-)의 영향관계를 약화시킬 것이다.

<가설 4-12> 일-여가 균형은 거주환경 인식과 삶의 만족도 간 정(+)의 영향관계를 강화시킬 것이다.

## 제 2 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 1. 지방이전에 따른 거주여건(독립변수)

앞서 연구 모형에서 밝힌 바와 같이 독립변수로 사용할 지방이전에 따른 거주여건 변화는 가족 동반거주 여부, 생활근거지 접근성 및 근무지역 거주환경 인식 세 가지로 구분한다.

#### 1) 가족 동반거주 여부

설문조사 문항으로 가족 동반거주 여부를 파악하여 가족 동반거주의 경우 1로 두고 그렇지 않을 경우 0로 두어 기준변수를 비동반거주로 하는 더미변수를 생성하였다.

#### 2) 생활근거지 접근성

생활근거지로의 접근성을 대변하는 지표로는 근무지역과 생활근거지 간 거리, 이동시간, 이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생활근거지까지의 거리가 멀수록, 이동시간이 길수록, 이동비용이 높을수록 개인이 체감하는 접근성은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거리 및 비용은 지표에서 배제하고 이동시간만을 변수로 활용하고자 한다. 혁신도시마다 접근할 수 있는 교통수단의 여건이 달라 단순 물리적 거리만으로는 접근성을 설명하기 어렵고<sup>10)</sup>, 상당수의 공공기관은 생활근거지로의 이동비용을 보조해 주는 것으로 파악되어 이동비용을 설명변수로 사용할 경우 왜곡된 결과를

---

10) 부산혁신도시 및 진주혁신도시와 서울역까지의 물리적 거리를 계산하면 부산-서울은 417km, 진주-서울은 343km이지만, KTX와의 접근성 문제로 이동시간은 부산-서울이 약 3시간, 진주-서울은 약 5시간이 소요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활근거지 접근성을 설문조사 문항을 통해 파악한 대중교통 수단(버스, KTX, 비행기 등)으로 이동하는데 체감되는 소요시간으로 정의하였다.

### 3) 근무지역 거주환경 인식

본 연구에서 사용할 거주환경 인식의 개념은 생활환경에서 있어야 할 것이 적절하게 제공되는지에 따라 거주자가 자신이 사는 곳에 대해 느끼는 정서적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포괄적 개념으로는 연구결과의 명료성을 떨어트릴 가능성이 높으며,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인 일-가정·성장·여가의 조절효과를 파악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어 이를 범주화할 필요가 있다.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국가별·시대별로 거주환경에 대한 분류 기준이 다양하며 연구 목적에 따라 거주환경을 제각기 범주화함으로써 통일된 항목을 찾기가 어려웠다. 최근 국내 연구로 강병수(2014)는 지역 어메니티와 주거 이전과의 관련성을 연구하면서 총 36개의 세부항목을 3가지로 범주화<sup>11)</sup>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천지은(2017)은 어메니티 인식이 공공기관 종사자의 가족동반이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좀 더 종사자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와 닿을만한 다섯 가지 범주<sup>12)</sup>로 발전시킨 바 있다. 본 연구와 주제는 상이하나, 이전 공공기관 직원을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고 거주환경(어메니티)이 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는 공통점과 연구 편의를 위해 천지은(2017)의 분류 기준과 유사하게 조작적으로 정의한 거주환경 범주와 세부항목의 설정을 정리하면 다음 [표3-1]과 같다.

- 
- 11) 어메니티 항목을 근린(주택가격, 초중고교의 질, 범죄예방 등), 도시(박물관, 도서관, 백화점, 레스토랑, 대학의 질 등), 환경(기후, 대기질, 상수도 수질, 골프장 등) 세 가지로 범주화(괄호 안은 해당 범주의 세부항목 예시)
- 12) 자녀교육, 문화소비, 정주환경, 자연환경, 보건의료 다섯 가지로 세분화하고 세부항목을 다시 선별·배분함.

[표3-1] 거주환경 인식에 대한 조작적 정의

항목	정의	세부 항목
자녀 교육 환경	성인이 아닌 다양한 학령의 자녀에게 투입할 수 있는 시설 및 입지에 대한 인식	영유아 국공립·민간 보육시설 및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공교육, 사설학원 및 과외와 학습지, 사교육업체 선택 폭의 다양성
문화 소비 환경	문화 콘텐츠를 향유하고 취미를 즐기며 금전적으로 소비하는데 관련한 시설 및 입지에 대한 인식	쇼핑시설(대형마트, 백화점 등), 문화시설(영화관,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등), 외식시설, 유원시설(동물원, 수족관 등), 스포츠 관람시설
정주 환경	주거 및 주택, 생활권 내 이동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시설 및 입지에 대한 인식	주택의 가격, 방법환경, 대중교통 편의성(노선의 다양성, 배차), 자차이용편의성(주행도로의 쾌적함, 주차 용이성), 소음 정도
자연 환경	지역적으로 사람과 다른 유기체에 영향을 주는 일련의 환경적 속성에 대한 인식	대기의 질(미세먼지, 황사 등), 상수도 수질, 인공자연환경(근린공원 등), 야외자연환경(산,바다,강 등)
보건 의료 환경	생활건강을 증진하고 질환을 치료하여 보건의료를 향상시키는 것과 관련된 시설 및 입지에 대한 인식	종합병원, 일반병원, 생활체육시설(헬스장, 골프연습장, 수영장 등)

## 2. 삶의 만족도(종속변수)

이 연구의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는 대개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로 측정된다. 이 연구에서는 ‘나는 현재 삶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라는 진술문에 대해 5점 척도로 측정한 결과를 이용한다. 단일 문항의 한계가 지적될 수 있으나, Nettle(2015)은 주관적 웰빙(subjective well-being)에 관한 여러 연구에서 단일문항 측정이 만족할만한 신뢰성과 타당성을 보였다고 설명한 바 있어 동 문항이 삶의 만족도 측정에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보여 진다.

### 3. 일-생활 균형(조절변수)

본 연구에서는 일-생활 균형을 일과 일 이외 영역에서 시간과 심리적·신체적 에너지를 적절히 분배함으로써 삶에 대한 통제감을 가지고, 삶에 대해 만족스러워 하는 상태라 정의하고 일-가정 균형, 일-성장 균형, 일-여가 균형으로 구분한 바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거주여건 변화와 삶의 만족도 간 관계에서 일-생활 균형의 조절효과를 측정하는 것이므로 김정운·박정열(2008)이 개발한 일-생활 균형 척도 총 25문항을 일과 가정, 성장, 여가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표6]으로 정리하였다.

한편, 일-생활 균형 수준에 대한 설문이 모두 부정적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data 역코딩을 통해 통계분석 및 해석의 편의성을 높이하고자 한다.



[표3-2] 일-생활 균형 수준 척도 문항

문항	영역	측정문항
1	일-가정 균형	나는 가족에게 신경을 많이 쓰지 못하는 편이다
2		회사 일을 집에 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다
3		퇴근 후에도 회사 일에 대한 걱정을 한다
4		일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가족에게 푼 적이 종종 있다
5		일 때문에 가족의 중요한 기념일(생일, 결혼기념일 등)을 잊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6		나는 나의 가정생활이 지금보다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
7		나는 나의 가정생활이 불만족스럽다
8		나는 일과 가정생활을 서로 조화시키는 것이 어렵다
9	일-성장 균형	나는 나의 목표와 비전을 생각하고, 삶을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을 거의 갖지 못한다
10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 경력관리에 무관심한 편이다
11		나는 자기개발에 거의 신경을 쓰지 못한다
12		일 때문에 자기개발 계획을 실천하기 어렵다
13		일에 치이다보니 나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잊게 된다
14		일 때문에 피곤해서 자기개발을 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15		나는 자기개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16		나는 일과 자기개발을 서로 조화시키는 것이 어렵다
17		일을 통해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가 힘들다
18	일-여가 균형	나는 여가나 운동에 할애하는 시간이 적다
19		나는 여가활동이나 건강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지 못한다
20		영화나 공연을 본지가 꽤 오래되었다
21		주말에는 피곤해서 여가활동을 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22		일 때문에 건강이 좋지 않은 적이 있다
23		나는 나의 여가생활이 불만족스럽다
24		나는 일과 여가생활을 서로 조화시키는 것이 어렵다
25		주말이 재미없고 무료하다

## 제 3 절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 1. 설문지의 구성 및 내용

본 연구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라 거주여건이 변화된 공공기관 조직원을 연구의 중심에 두고 이러한 거주여건의 변화와 삶의 만족도와와의 관계를 규명하고, 그들의 일-생활 균형 수준 인식에 따라 삶의 만족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조사대상자가 문항별 해당되는 곳에 직접 기입하는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또한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응답자 모두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표준화된 설문을 이용하였다.

인구통계학적 부문과 독립변수 중 거주형태를 파악하기 위한 부문(가족 동반거주 여부와 생활근거지 접근성)을 제외한 모든 변수들은 응답자들로 하여금 각 설문문항에 대해 자신들의 견해를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 까지 Likert 5점 척도에 따라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각 변수에 대한 설문구성은 다음과 같다.

독립변수인 근무지역 거주환경 인식(중요도 및 만족도)에 관한 설문은 총 48문항(중요도 및 만족도 각 24문항)으로,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에 관한 설문으로 총 1문항으로, 조절변수인 일-생활 균형에 관한 설문으로 총 2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표3-3] 설문지의 구성

구분	구성		설문번호	문항수	척도
독립 변수	동반거주여부		Ⅱ.1	1	명목
	생활근거지 접근성		Ⅱ.2	1	비율
	거주 환경	자녀교육환경	Ⅲ.1~3	3	리커트 5 점 도
		문화소비환경	Ⅲ.4~7	4	
		정주환경	Ⅲ.8~12	5	
		자연환경	Ⅲ.13~16	4	
		보건의료환경	Ⅲ.17~20	4	
조절 변수	일-생활 균형	일-가정균형	Ⅰ.2~8	8	
		일-성장균형	Ⅰ.9~17	9	
		일-여가균형	Ⅰ.18~25	8	
종속 변수	삶의만족도		Ⅰ.1	1	
인구통계학적요인			Ⅳ.1~6	6	명목
전체문항수				54	

## 2. 자료 수집 및 분석방법

### 1)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해 지방이전이 완료된 공공기관 본사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2020년 4월 8일부터 4월 17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252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으며 이 중 본

연구목적의 표본에 해당하지 않는 대상<sup>13)</sup> 20건과 불성실한 답변 4건을 제외한 총 228건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 2)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에 대한 통계처리는 데이터 코딩을 거쳐, SPSS를 활용하여 통계처리 및 분석을 할 것이며,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 분석을 위해서는 빈도수와 백분율을 산출하는 빈도분석을, 측정 변수의 분포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는 기술 통계분석을 실시코자 한다. 구체적인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에 대한 빈도분석을 실시한다.

둘째, 각 변수의 구성요소에 대해 내적 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설문문항 항목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설문문항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인 크론바흐 알파 값을 통하여 신뢰도를 측정한다.

셋째, 가설 검정을 위한 분석으로 변수의 상관관계를 탐색하기 위해 피어슨 상관계수를 모든 연속형 변수를 대상으로 분석한다.

넷째,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에서 일-생활 균형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

13) 주거지를 이주하지 않고 통근하는 경우 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거주여건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여 연구목적과 불일치

## 제 4 장 실증분석 결과 및 해석

### 제 1 절 일반적 특성 및 평가도구 검증

#### 1.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적 특성

응답자들의 기본적 인구통계적 특성에 대한 조사 결과는 [표4-1]과 같다. 응답자들의 성별의 경우, 남성이 179명(78.5%)으로 다수를 차지했으며, 여성은 49명(21.5%)에 그쳤다.

연령대별 분포를 살펴보면 20대는 9명(3.9%), 30대는 51명(22.4%), 40대는 149명(65.4%), 50대는 19명(8.3%)이며, 결혼 여부는 기혼이 181명(79.4%), 비혼 47명(20.6%)로 기혼 중장년층의 분포가 많은 것이 확인된다.

응답자들의 자녀수는 2명인 경우가 109명(47.8%)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녀가 없는 경우 57명(25.0%), 1명인 경우 54명(23.7%), 3명 이상인 경우 8명(3.5%) 순으로 나타났다.

첫째 자녀가 재학 중인 교육기관은 초등학교 재학이 82명(46.6%), 중학교 재학이 33명(18.8%), 미취학이 25명(14.8%),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 19명(10.8%), 고등학교 재학이 16명(9.1%) 순으로 분포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응답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공공기관 본사 소재지는 경북 66명(28.9%), 부산 39명(17.1%), 광주/전남 32명(14.0%), 대구 30명(13.2%), 울산 19명(8.3%), 개별이전 14명(6.1%), 전북 11명(4.8%), 경남 8명(3.5%), 강원 5명(2.2%), 제주 3명(1.3%), 충북 1명(0.4%) 순이었다.

[표4-1]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적 특성 (N=228)

구분	분류	빈도(명)	비율(%)
성별 (n=228)	남성	179	78.5
	여성	49	21.5
연령 (n=228)	20대	9	3.9
	30대	51	22.4
	40대	149	65.4
	50대	19	8.3
결혼 (n=228)	기혼	181	79.4
	비혼	47	20.6
자녀수 (n=228)	없음	57	25.0
	1명	54	23.7
	2명	109	47.8
	3명 이상	8	3.5
첫째 자녀 교육 기관 (n=176)	미취학	26	14.8
	초등학교 재학	82	46.6
	중학교 재학	33	18.8
	고등학교 재학	16	9.1
	고등학교 졸업 이상	19	10.8
본사 소재 혁신도시 (n=228)	부산	39	17.1
	대구	30	13.2
	광주/전남	32	14.0
	울산	19	8.3
	강원	5	2.2
	충북	1	0.4
	전북	11	4.8
	경북	66	28.9
	경남	8	3.5
	제주	3	1.3
	기타 개별이전	14	6.1

## 2. 연구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측정

비전수조사인 본 연구의 특성을 감안할 때 가설의 검증 및 통계적 일반화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모수의 안정적이고 적절한 구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통계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조절변수인 일-생활 균형 요인에 대해 하위 요인이 어떻게 분류되는지 파악하고자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sup>14)</sup> 요인 추출 방법으로는 주축 요인 추출을 실시하였고 베리맥스 회전을 하였다. 그 결과 25개 항목 중 6개 항목(가정5, 가정6, 가정7, 성장9, 여가1, 여가2)은 타당도를 저해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고, 나머지 총 19개 항목으로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당초 설문을 구성한 일-생활 균형 변수는 김정운·박정열(2008)에 의해 개발된 척도를 사용하였음에도 일부 구성 요인이 뚜렷하게 분리되지 않은 것은 분석 대상의 차이, 시대적 변화 등에 기인한다고 사료된다.

일-생활 균형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토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4-2]와 같다

KMO값이 .915, 바틀렛의 구형성 검정이  $p < .001$ 에서 유의하므로, 투입된 문항들이 공통요인을 가져 요인분석에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19개의 문항은 분산설명력 61.061%에서 일-가정 균형, 일-성장 균형, 일-여가 균형 등 3개 요인으로 적절히 분류되었으며, 요인 적재값도 모두 기준값 0.4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Cronbach's  $\alpha$  값은 일-생활 균형 전체 .927, 일-가정 균형 .771, 일-성장 균형 .905, 일-여가 균형 .852 등으로 모두 0.7을 상회하여 신뢰도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14) 요인분석 대상은 하나의 추상적인 개념을 구성하는 여러 세부항목 변수들을 대상으로 함에 따라 독립변수 중 '실태조사'에 가까운 거주환경 인식은 요인분석 미실시

[표4-2] 일-생활 균형 측정도구 타당도/신뢰도 분석결과

측정문항	성분			Cronbach's α				
	1	2	3					
가정1_나는 가족에게 신경을 많이 쓰지 못하는 편이다	-.005	.399	.448	.771	.927			
가정2_회사 일을 집에 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다	.037	.031	.825					
가정3_퇴근후에도 회사일에 대한 걱정을 한다	.183	.088	.785					
가정4_일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가족에게 푼적이 종종 있다	.216	.220	.585					
가정8_나는 일과 가정생활을 서로 조화시키는 것이 어렵다	.281	.493	.534					
성장1_나의 목표와 비전을 생각하고 삶을 반성할수 있는 시간을 거의 갖지 못한다	.563	.397	.340	.905		.927		
성장2_다른 사람에 비해 경력관리에 무관심한 편이다	.580	.009	-.154					
성장3_자기개발에 거의 신경을 쓰지 못한다	.811	.167	.032					
성장4_일때문에 자기개발 계획을 실천하기 어렵다	.691	.320	.320					
성장5_일에 차이다보니 나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잊게 된다	.656	.401	.377					
성장6_일때문에 피곤해서 자기개발을 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587	.447	.372					
성장7_나는 자기개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784	.196	.247					
성장8_나는 일과 자기개발을 서로 조화시키는 것이 어렵다	.716	.394	.289					
여가3_영화나 공연을 본지가 꽤 오래되었다	.197	.716	-.135	.852			.927	
여가4_주말에는 피곤해서 여가활동을 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160	.773	.261					
여가5_일때문에 건강이 좋지 않은 적이 있다	.101	.423	.420					
여가6_나의 여가생활이 불만족스럽다	.370	.722	.319					
여가7_일과 여가생활을 서로 조화시키는 것이 어렵다	.372	.690	.349					
여가8_주말이 재미없고 무료하다	.246	.673	.145					
공통분산(%)	22.428	21.266	17.366					
누적분산(%)	22.428	43.694	61.061					
KMO=.915 / Bartlett's test χ2=2624.272(p<.001)								



### 3. 주요 변인 기술통계

본 연구의 주요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분석 결과는 [표4-3]과 같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는 평균 3.76으로, 보통 수준 이상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들을 살펴보면, 가족동거 여부는 범주형 변수로 단신부임 139명, 동반거주 89명으로 나타났고, 생활근거지까지의 소요시간은 평균 2.56시간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거주환경 인식은 평균 2.90으로 보통 수준인 것으로 보이나, 세부적으로는 교육환경, 소비환경, 보건환경 인식은 보통 이하인 반면, 정주환경과 자연환경은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다. 조절변수인 일-생활 균형은 전체 변수가 평균 3.06, 일-가정 균형 평균 3.21, 일-성장 균형 평균 2.96, 일-여가 균형 평균 3.07 등 전반적으로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4-3] 기술통계 분석 결과

변수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삶의 만족도		228	1.00	5.00	3.76	0.93
가족동거여부_동거		228	단신부임: 139명, 가족동거: 89명			
생활근거지 접근성(시간)		228	0.00	10.00	2.56	1.59
거주환경 인식 전체		228	1.30	5.00	2.90	0.61
	교육환경 인식	228	1.00	5.00	2.70	0.87
	소비환경 인식	228	1.00	5.00	2.41	0.96
	정주환경 인식	228	2.00	5.00	3.10	0.68
	자연환경 인식	228	2.00	5.00	3.54	0.70
	보건환경 인식	228	1.00	5.00	2.63	0.92
일-생활 균형 전체		228	1.00	5.00	3.06	0.74
	일-가정 균형	228	1.00	5.00	3.21	0.80
	일-성장 균형	228	1.00	5.00	2.96	0.87
	일-여가 균형	228	1.00	5.00	3.07	0.88

#### 4.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분석

주요 변수들 간의 전반적인 관계와 다중공선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삶의 만족도의 경우 가족동거여부( $r=.160, p<.05$ ), 거주환경 인식( $r=.217, p<.01$ ), 일-생활 균형( $r=.445, p<.001$ ), 일-가정 균형( $r=.371, p<.001$ ), 일-성장 균형( $r=.381, p<.001$ ), 일-여가 균형( $r=.406, p<.001$ )과 정(+)의 상관관계가 유의하였고, 생활근거지 접근성( $r=-.210, p<.01$ )과 부(-)의 상관관계가 유의하였다.

가족동거여부는 일-가정 균형( $r=.209, p<.01$ )과 정(+)의 상관관계가 유의하였고, 생활근거지 접근성( $r=-.399, p<.001$ )과 부(-)의 상관관계가 유의하였다.

생활근거지 접근성은 일-생활 균형( $r=-.215, p<.01$ ), 일-가정 균형( $r=-.236, p<.001$ ), 일-성장 균형( $r=-.175, p<.01$ ), 일-여가 균형( $r=-.165, p<.05$ )과 부(-)의 상관관계가 유의하였다.

거주환경 인식은 일-생활 균형( $r=.216, p<.01$ ), 일-가정 균형( $r=.153, p<.05$ ), 일-성장 균형( $r=.175, p<.01$ ), 일-여가 균형( $r=.232, p<.001$ )과 정(+)의 상관관계가 유의하였다.

가장 높은 상관계수는 .908로 나타났지만 이는 조절변수의 상위 변수와 하위요인 간의 상관으로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상관계수는 .445 수준으로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4-4] 상관관계 분석 결과

		삶의 만족도	가족동거 여부_동거	생활근거 지 접근성(시 간)	거주환경 인식	일-생활 균형			
						일-생활 균형 전체	일-가정 균형	일-성장 균형	일-여가 균형
삶의만족도		1							
가족동거여부_동거		.160*	1						
생활근거지 접근성 (시간)		-.210**	-.399***	1					
거주환경 인식		.217**	.065	-.094	1				
일- 생활 균형	일-생활 균형 전체	.445***	.099	-.215**	.216**	1			
	일-가정 균형	.371***	.209**	-.236***	.153*	.785***	1		
	일-성장 균형	.381***	.019	-.175**	.175**	.908***	.561***	1	
	일-여가 균형	.406***	.080	-.165*	.232***	.883***	.600***	.687***	1

\*p<.05, \*\*p<.01, \*\*\*p<.001

## 제 2 절 가설 검증

### 1. 지방이전 거주여건의 삶의 만족도 영향

지방이전 거주여건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가설1>, <가설2>, <가설3>을 검증하였고, 통제변수로는 성별, 연령, 결혼여부를 투입하였다.

회귀모형의 검정통계량 F가 4.580으로  $p<.001$ 에서 유의하여 투입된 변수들이 삶의 만족도를 의미 있게 설명하고 있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11.1%로 나타났다.

각 독립변수별 영향을 살펴보면 가족 동반거주 여부( $\beta=.059$ ,  $p=.449$ )는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을 기각한다. 반면, 생활근거지 소요시간( $\beta = -.164$ ,  $p < .05$ ), 거주환경 인식( $\beta = .217$ ,  $p < .001$ )은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하면 근무지와 생활근거지까지의 이동소요시간이 짧을수록, 거주환경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표4-5] 지방이전 거주여건의 삶의 만족도 영향 분석결과

변수	B	SE	$\beta$	t	p	VIF
(상수)	3.583	.565		7.656	.000	
성별_남성	-.358	.171	-.159	-2.092	.038	1.429
응답자 연령	.004	.012	.027	.345	.730	1.534
결혼여부_기혼	.296	.214	.129	1.382	.168	2.178
가족동거여부_동거	.112	.148	.059	.758	.449	1.501
생활근거지 접근성(시간)	-.096	.041	-.164	-2.344	.020	1.216
거주환경 인식	.329	.098	.217	3.357	.001	1.042
F(p)	4.580( $p < .001$ )					
R <sup>2</sup>	.111					
adj R <sup>2</sup>	.086					

더미처리 기준변수(0): 성별(여성), 결혼여부(미혼), 가족동거여부(단독부임)

## 2. 일-생활 균형의 조절효과 분석

지방이전 거주여건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일-생활 균형의 조절효과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고 <가설 4>를 검증하였다. 첫 번째 모형에서는 통제변수와

독립변수를 투입하였고, 두 번째 모형에서는 조절변수를 추가 투입, 세 번째 모형에서는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항을 추가 투입하였다. 이때 상호작용항의 영향이 유의하고 세 번째 모형의 설명력 증가량이 유의하다면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게 된다.

한편, 독립변수 중 범주형 변수인 가족동거여부를 제외한 생활근거지 접근성과 거주환경 인식, 조절변수들은 VIF(분산팽창지수)값을 낮추기 위해 평균중심화하여 투입하였다.

상위개념인 일-생활 균형과 하위개념인 일-가정 균형, 일-성장 균형, 일-여가 균형 각각의 조절효과를 모두 살펴보기 위해 총 4개의 위계적 회귀분석 모델을 설정하고 분석하였다.

## 1) 일-생활 균형의 조절효과

통제변수와 독립변수가 투입된 첫 번째 모형의 경우 모형의 설명력은 11.1%였고, 지방이전 거주여건 변수 중 생활근거지까지의 소요시간( $\beta = -.164, p < .05$ ), 거주환경 인식( $\beta = .217, p < .001$ )이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의 ‘지방이전 거주여건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회귀모형과 비교하여 일부 독립변수의 평균중심화만 이루어졌으므로 동일한 결과이다.

조절변수 일-생활 균형이 추가로 투입된 두 번째 모형의 경우 모형의 설명력은 25.5%로 나타났고, 설명력 증가량 14.4%는 유의하였다 ( $p < .001$ ). 주요변수의 영향을 살펴보면 거주환경 인식( $\beta = .141, p < .05$ ), 일-생활 균형( $\beta = .397, p < .001$ )이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작용항이 추가로 투입된 세 번째 모형의 경우 모형의 설명력은 25.9%로 나타났고, 설명력 증가량 0.4%는 유의하지 않았다. 주요변수의 영향을 살펴보면 두 번째 모형과 유사하게 거주환경 인식( $\beta = .158, p < .05$ ), 일-생활 균형( $\beta = .368, p < .001$ )이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조절효과 모형 검증 결과를 정리하면, 거주환경 인식이 긍정적이고, 일-생활 균형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며, 거주환경 인식의 영향이 일-생활 균형 수준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표4-6] 일-생활 균형의 조절효과 분석결과

변수	독립변수 투입			조절변수 투입			상호작용항 투입		
	B	$\beta$	t	B	$\beta$	t	B	$\beta$	t
(상수)	3.583		7.656	3.590		8.361	3.603		8.315
성별_남성	-.358	-.159	-2.092*	-.387	-.172	-2.466*	-.393	-.174	-2.467*
응답자 연령	.004	.027	.345	.005	.030	.417	.005	.032	.432
결혼여부_기혼	.296	.129	1.362	.293	.128	1.487	.270	.118	1.360
가족동거여부_동거	.112	.059	.758	.110	.058	.812	.111	.059	.812
mc생활근거지접근성(시간)	-.096	-.164	-2.344*	-.051	-.087	-1.338	-.048	-.082	-1.239
mc거주환경 인식	.329	.217	3.357***	.214	.141	2.329*	.239	.158	2.517*
mc일-생활 균형				.496	.397	6.519***	.460	.368	4.540***
가족동거*일-생활 균형							.067	.035	.421
접근성*일-생활 균형							-.024	-.031	-.481
거주환경*일-생활 균형							-.112	-.062	-.988
F	4.580***			10.734***			7.576***		
R <sup>2</sup>	.111			.255			.259		
adj R <sup>2</sup>	.086			.231			.225		
$\Delta R^2$				.144***			.004		
VIF	1.042~2.178			1.082~2.178			1.150~2.207		

\*p<.05, \*\*p<.01, \*\*\*p<.001

더미처리 기준변수(0): 성별(여성), 결혼여부(미혼), 가족동거여부(독거)

## 2) 일-가정 균형의 조절효과

통제변수와 독립변수가 투입된 첫 번째 모형의 값들은 앞의 일-생활 균형의 조절효과 분석과 동일하다.

조절변수 일-가정 균형이 추가로 투입된 두 번째 모형의 경우 모형의 설명력은 20.1%로 나타났고, 설명력 증가량 9.1%는 유의하였다( $p < .001$ ). 주요변수의 영향을 살펴보면 거주환경 인식( $\beta = .177$ ,  $p < .01$ ), 일-가정 균형( $\beta = .317$ ,  $p < .001$ )이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작용항이 추가로 투입된 세 번째 모형의 경우 모형의 설명력은 20.9%로 나타났고, 설명력 증가량 0.8%는 유의하지 않았다. 주요변수의 영향을 살펴보면 두 번째 모형과 유사하게 거주환경 인식( $\beta = .190$ ,  $p < .01$ ), 일-가정 균형( $\beta = .244$ ,  $p < .01$ )이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조절효과 모형 검증결과를 정리하면, 거주환경 인식이 긍정적이고, 일-가정 균형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며, 거주환경 인식의 영향이 일-가정 균형 수준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4-7] 일-가정 균형의 조절효과 분석결과

변수	독립변수 투입			조절변수 투입			상호작용항 투입		
	B	$\beta$	t	B	$\beta$	t	B	$\beta$	t
(상수)	3.583		7.656	3.459		7.771	3.403		7.582
성별_남 성	-.358	-.159	-2.092*	-.361	-.160	-2.224*	-.372	-.165	-2.279*
응답자 연령	.004	.027	.345	.009	.056	.751	.011	.070	.923
결혼여 부_기혼	.296	.129	1.362	.244	.106	1.195	.208	.091	1.008
가족동 거여부_ 독거	.112	.059	.758	.053	.028	.375	.051	.027	.359
mc생활 근거지 접근성 (시간)	-.096	-.164	-2.344*	-.062	-.107	-1.580	-.058	-.100	-1.472
mc거주 환경인 식	.329	.217	3.357***	.268	.177	2.855**	.288	.190	2.999**
mc일- 가정균 형				.366	.317	5.002***	.282	.244	2.881**
가족동 거*일- 가정균 형							.213	.118	1.290
접근성* 일-가 정균형							.021	.025	.369
거주환 경*일- 가정균 형							-.117	-.066	-1.027
F	4.580***			7.926***			5.749***		
R <sup>2</sup>	.111			.201			.209		
adj R <sup>2</sup>	.086			.176			.173		
$\Delta R^2$				.091***			.008		
VIF	1.042~2.178			1.060~2.184			1.106~2.287		

\*p<.05, \*\*p<.01, \*\*\*p<.001

더미처리 기준변수(0): 성별(여성), 결혼여부(미혼), 가족동거여부(독거)

### 3) 일-성장 균형의 조절효과

통제변수와 독립변수가 투입된 첫 번째 모형의 값들은 앞의 분석들과 동일하다.

조절변수 일-성장 균형이 추가로 투입된 두 번째 모형의 경우 모형의 설명력은 22.4%로 나타났고, 설명력 증가량 11.3%는 유의하였다 ( $p < .001$ ). 주요변수의 영향을 살펴보면 거주환경 인식( $\beta = .164$ ,  $p < .01$ ), 일-성장 균형( $\beta = .348$ ,  $p < .001$ )이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작용항이 추가로 투입된 세 번째 모형의 경우 모형의 설명력은 23.0%로 나타났고, 설명력 증가량 0.7%는 유의하지 않았다. 주요변수의 영향을 살펴보면 두 번째 모형과 유사하게 거주환경 인식( $\beta = .183$ ,  $p < .01$ ), 일-성장 균형( $\beta = .316$ ,  $p < .001$ )이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조절효과 모형 검증결과를 정리하면, 거주환경 인식이 긍정적이고, 일-성장 균형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며, 거주환경 인식의 영향이 일-성장 균형 수준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는

[표4-8] 일-성장 균형의 조절효과 분석결과

변수	독립변수 투입			조절변수 투입			상호작용항 투입		
	B	$\beta$	t	B	$\beta$	t	B	$\beta$	t
(상수)	3.583		7.656	3.665		8.360	3.706		8.392
성별_남 성	-.358	-.159	-2.092*	-.403	-.178	-2.510*	-.400	-.177	-2.460*
응답자 연령	.004	.027	.345	.001	.009	.121	.001	.005	.063
결혼여부_미혼	.296	.129	1.382	.377	.164	1.871	.359	.157	1.773
가족동거여부_동거	.112	.059	.758	.133	.070	.963	.126	.066	.893
mc생활근거지접근성 (시간)	-.096	-.164	-2.344*	-.060	-.102	-1.543	-.063	-.108	-1.587
mc거주환경인식	.329	.217	3.357**	.248	.164	2.665**	.277	.183	2.880**
mc일-성장균형				.373	.348	5.662***	.339	.316	3.869***
가족동거*일-성장균형							.046	.028	.336
접근성*일-성장균형							-.041	-.066	-1.006
거주환경*일-성장균형							-.095	-.065	-1.011
F	4.580***			9.057***			6.494***		
R <sup>2</sup>	.111			.224			.230		
adj R <sup>2</sup>	.086			.199			.195		
$\Delta R^2$				.113***			.007		
VIF	1.042~2.178			1.068~2.189			1.136~2.208		

\*p<.05, \*\*p<.01, \*\*\*p<.001

더미처리 기준변수(0): 성별(여성), 결혼여부(미혼), 가족동거여부(독거)

#### 4) 일-여가 균형의 조절효과

통제변수와 독립변수가 투입된 첫 번째 모형의 값들은 앞의 분석들과 동일하다.

조절변수 일-여가 균형이 추가로 투입된 두 번째 모형의 경우 모형의 설명력은 22.5%로 나타났고, 설명력 증가량 11.4%는 유의하였다 ( $p < .001$ ). 주요변수의 영향을 살펴보면 거주환경 인식( $\beta = .142$ ,  $p < .05$ ), 일-여가 균형( $\beta = .353$ ,  $p < .001$ )이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작용항이 추가로 투입된 세 번째 모형의 경우 모형의 설명력은 22.5%로 나타났고, 설명력 증가량 0.1%는 유의하지 않았다. 주요변수의 영향을 살펴보면 두 번째 모형과 유사하게 거주환경 인식( $\beta = .146$ ,  $p < .05$ ), 일-여가 균형( $\beta = .353$ ,  $p < .001$ )이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조절효과 모형 검증결과를 정리하면, 거주환경 인식이 긍정적이고, 일-여가 균형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며, 거주환경 인식의 영향이 일-여가 균형 수준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는

[표4-9] 일-여가 균형의 조절효과 분석결과

변수	독립변수 투입			조절변수 투입			상호작용항 투입		
	B	$\beta$	t	B	$\beta$	t	B	$\beta$	t
(상수)	3.583		7.656	3.595		8.210	3.598		8.070
성별_남 성	-.358	-.159	-2.092*	-.365	-.162	-2.282*	-.370	-.164	-2.262*
응답자 연령	.004	.027	.345	.005	.034	.457	.006	.035	.468
결혼여부_미혼	.296	.129	1.382	.225	.098	1.121	.217	.095	1.067
가족동거여부_동거	.112	.059	.758	.129	.068	.936	.131	.069	.937
mc생활근거지접근성 (시간)	-.096	-.164	-2.344*	-.066	-.113	-1.703	-.065	-.111	-1.659
mc거주환경 인식	.329	.217	3.357**	.215	.142	2.291*	.221	.146	2.301*
mc일-여가 균형				.371	.353	5.695***	.371	.353	4.311***
가족동거*일-여가 균형							-.005	-.003	-.033
접근성*일-여가 균형							-.003	-.005	-.067
거주환경*일-여가 균형							-.039	-.025	-.399
F	4.580***			9.118***			6.317***		
R <sup>2</sup>	.111			.225			.225		
adj R <sup>2</sup>	.086			.200			.190		
$\Delta R^2$				.114***			.001		
VIF	1.042~2.178			1.088~2.187			1.112~2.211		

\*p<.05, \*\*p<.01, \*\*\*p<.001

더미처리 기준변수(0): 성별(여성), 결혼여부(미혼), 가족동거여부(독거)

### 3. 소결

이상의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거주여건 변화 중 생활근거지와 접근성이 좋을수록(생활근거지까지의 이동 소요시간이 짧을수록), 이전된 거주환경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삶의 만족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의 일-생활 균형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 또한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거주여건 변화 중 가족동반거주 여부는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며, 거주여건 변화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일-생활 균형의 조절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4-10] 가설검증 결과 종합

구분	가설	검증결과
가설 1	가족 동반거주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삶의 만족도가 더 높을 것이다.	X
가설 2	생활근거지까지의 소요시간이 짧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O
가설 3	거주환경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삶의 만족도는 높을 것이다.	O
가설 4-1	일-생활 균형은 가족 동반거주의 경우와 삶의 만족도 간 정(+)의 영향관계를 강화시킬 것이다	X
가설 4-2	일-생활 균형은 생활근거지까지의 소요시간과 삶의 만족도 간 부(-)의 영향관계를 약화시킬 것이다	X
가설 4-3	일-생활 균형은 거주환경 인식과 삶의 만족도 간 정(+)의 영향관계를 강화시킬 것이다	X
가설 4-4	일-가정 균형은 가족 동반거주의 경우와 삶의 만족도 간 정(+)의 영향관계를 강화시킬 것이다	X
가설 4-5	일-가정 균형은 생활근거지까지의 소요시간과 삶의 만족도 간 부(-)의 영향관계를 약화시킬 것이다	X
가설 4-6	일-가정 균형은 거주환경 인식과 삶의 만족도 간 정(+)의 영향관계를 강화시킬 것이다	X
가설 4-7	일-성장 균형은 가족 동반거주의 경우와 삶의 만족도 간 정(+)의 영향관계를 강화시킬 것이다	X
가설 4-8	일-성장 균형은 생활근거지까지의 소요시간과 삶의 만족도 간 부(-)의 영향관계를 약화시킬 것이다	X
가설 4-9	일-성장 균형은 거주환경 인식과 삶의 만족도 간 정(+)의 영향관계를 강화시킬 것이다	X
가설 4-10	일-여가 균형은 가족 동반거주의 경우와 삶의 만족도 간 정(+)의 영향관계를 강화시킬 것이다	X
가설 4-11	일-여가 균형은 생활근거지까지의 소요시간과 삶의 만족도 간 부(-)의 영향관계를 약화시킬 것이다	X
가설 4-12	일-여가 균형은 거주환경 인식과 삶의 만족도 간 정(+)의 영향관계를 강화시킬 것이다	X

#### 4. 추가 분석

본 연구가 가족과의 동거여부, 생활근거지 접근성, 주거환경 인식, 일-가정 균형 등 가정생활에 관련된 변수를 사용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미혼자보다는 기혼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할 때 변수 간 관계를 보다 뚜렷이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당초 표본(228개 케이스) 중 기혼자만을 대상(181개 케이스)으로 분석한 결과를 추가로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 방법은 원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과 마찬가지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 모형에서는 통제변수와 독립변수를 투입하였고, 두 번째 모형에서는 조절변수를 추가 투입, 세 번째 모형에서는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항을 추가 투입하였고, 통제변수는 “성별”, “연령”을 적용하였다.

한편, 독립변수 중 범주형 변수인 가족동거여부를 제외한 생활근거지 접근성과 거주환경 인식, 조절변수들은 VIF(분산팽창지수)값을 낮추기 위해 평균중심화하여 투입하였으며, 상위개념인 일-생활 균형과 하위개념인 일-가정 균형, 일-성장 균형, 일-여가 균형 각각의 조절효과를 모두 살펴보기 위해 총 4개의 위계적 회귀분석 모델을 설정하고 분석하였다.

논문의 효율적 기술을 위해 본 장에서는 분석 결과만을 기술하고 통계분석 등 세부적인 내용은 부록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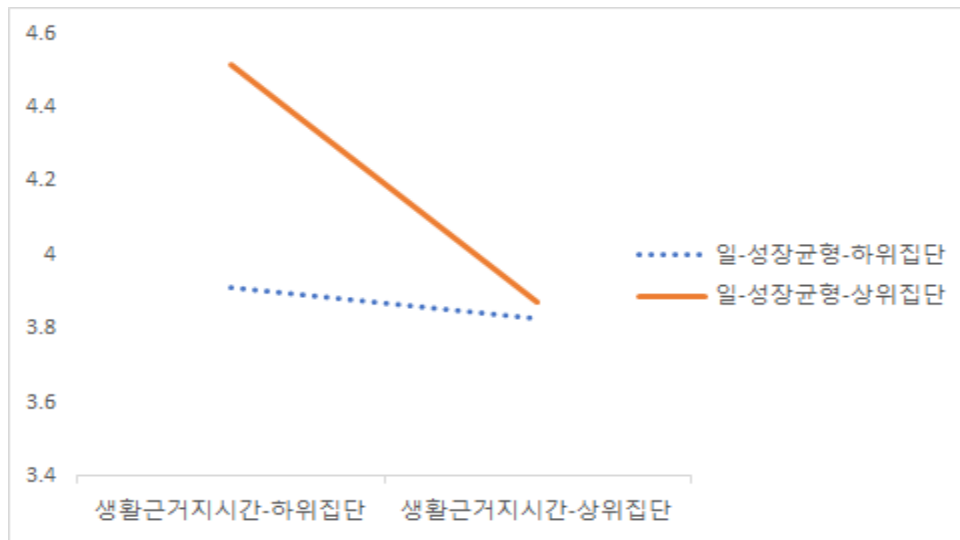


분석 결과, 기혼자만을 표본으로 한 연구에서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거주여건 변화 중 생활근거지까지의 이동 소요시간이 짧을수록, 이전된 거주환경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삶의 만족도는 높아지며,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의 일-생활 균형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동일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추가로, 조절변수인 일-성장 균형은 생활근거지까지의 이동소요시간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 영향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성장 균형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생활근거지 접근성이 좋을 때 느끼는 행복감, 생활근거지 접근성이 나쁠 때 느끼는 불행감을 더 크게 느낀다는 의미이다. 일-성장균형 수준이 높다는 것은 “자기계발을 할 환경적 여유가 갖춰진 사람”으로 볼 수도 있지만, “자기계발과 개인적 성장에 높은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도 볼 수 있으며, 자기계발 의지가 높은 사람의 경우 생활근거지가 멀어서 도로 위에서 보내야 하는 시간이 길수록 상대적으로 더 불행하게 느낄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당초 분석에서는 이러한 조절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는데 기혼자만을 대상으로 할 때 유의한 결과가 나온 것은 미혼자의 경우 직장 생활근거지 간 거리가 다소 멀더라도 상대적으로 자기계발 시간을 여유 있게 조정할 수 있는데 반해, 기혼자는 직장 이외 가정에도 일정 시간 이상을 고정적으로 들여야 하기 때문에 자기계발에 시간을 투자함에 있어 직장 생활근거지 간 거리에서 오는 불편함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라 풀이해 볼 수 있다.

[그림4-1] 일-성장균형 조절효과(기혼자만 분석)



## 제 5 장 결론 및 시사점

### 제 1 절 연구 결과

본 연구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이후 비교적 오랜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거주여건 변화(가족동거 여부, 생활근거지 접근성, 거주환경 인식)가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그 과정에서 일-생활 균형(일-가정 균형, 일-성장 균형, 일-여가 균형)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연구목적에 따라 위계적 회귀분석(독립변수만 포함한 모형, 조절변수를 추가한 모형, 상호작용항을 추가한 모형)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가족동반 이전 여부는 종사자의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근로자의 ‘비동거적’ 직장생활로 인해 가족 간의 역할갈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스트레스가 발생한다는 기존 연구들(최정혜, 2002; 백지애·최수찬, 2006)과 불일치하는 결과이며,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라는 사회적 통념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결과이다.

둘째, 공공기관 이전 지역과 생활근거지와와의 접근성이 좋을수록 삶의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대상자들의 근무지역과 생활근거지 간 평균 이동소요시간은 약 2시간 반(2.56시간) 수준으로 나타나 물리적·심리적 거리감에 따른 불만족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되며, 통근시간 증가가 개인의 행복감이나 일-생활 균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들(진장익 외, 2017; 빈미영·손슬기, 2019)과도 일정 부분 궤를 같이 한다. 한편, 생활근거지 접근성의 영향이 독립변수만 포함한 모형에서는 유의미하였으나 조절변수를 추가한 모형에는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난 것은 생활근거지 접근성과 일-생활균형 간 높은 상관관계에 기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셋째, 이전 지역에 대한 거주환경 인식이 삶의 만족도에 밀접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만 포함한 모형에서부터 상호작용항을 추가한 모형까지 모든 모형에서 일관성 있는 결과가 나타났다는 점에서 거주환경 인식이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삶의 만족도에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일-생활 균형 요인은 하위 요인을 모두 포함하여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일-생활 균형의 하위 요인별로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일-여가 균형, 일-성장 균형, 일-가정 균형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생활 균형 요인이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의 거주여건 변화와 삶의 만족도 간 관계에서 조절효과로 기능하지는 않았다.

마지막으로, 표본을 일부 수정하여 기혼자만을 대상으로 동일 연구를 수행한 결과, 일-성장균형이 생활근거지 소요시간과 삶의 만족도 간 부(-) 관계를 강화하는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제 2 절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흥미로운 점과 이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족동반 거주 여부가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점과 일-가정 균형이 일-생활 균형의 하위 요인별로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가 가장 작다는 점은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며 생활하는 것이 행복의 최우선 조건이라는 사회적 통념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준다. 특히, 본 연구의 표본 중 79.4%가 기혼자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연구 결과는 의미가 있다 하겠다.

또한, 일-생활 균형 하위 요인 중 일-여가 균형과 일-성장 균형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은 공공기관

인사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인의 생활근거지에서 멀리 떨어져 격지근무를 하는 조직원에 대해 승진, 교육기회 확대 등의 보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시차출퇴근제, 탄력근무제 등 유연한 근무제도의 실질적 운영을 통해 조직원의 여가시간 확보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개인적 사정에 따라 본인의 생활근거지와 멀리 떨어져 장거리 출퇴근을 해야 하는 기혼 직원들의 경우 모바일 연수 등을 활용하여 자기계발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이동 시간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혁신도시 거주환경 개선이 시급하다. 혁신도시 거주환경 인식에 대한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정주환경 및 자연환경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면, 교육환경, 소비환경 및 보건환경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부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혁신도시 시즌2’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교육시설, 쇼핑·문화시설, 의료시설 확충 등을 주요 과제로 선정하고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제 3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이라는 주제를 정책효과 측면이나 조직관리 차원에서 보지 않고 기관 종사자들의 거주여건 변화와 삶의 만족도, 일-생활 균형과 같이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또한, 특정 혁신도시나 공공기관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모든 혁신도시에 위치한 다수의 공공기관을 표본으로 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할 수 있다.

하지만, 다수의 혁신도시 소재 공공기관을 연구대상을 설정한 것에 반해 표본의 수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 특히, 표본의 분포가 특정 혁신도시에 치중되었다는 점에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이후 연구에서는 지역별, 공공기관별 더 많은 표본을 균형 있게 반영하여 연구를 확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가 인식하는 거주여건 변화와 일-생활 균형 수준, 삶의 만족도는 이전 지역별 특성(대도시 또는 중소도시)이나 기관의 성격(순환근무 또는 고정근무)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차이를 고려하지 못했다. 또한, 설문조사에 가족을 동반하지 않고 단독 이주한 이유를 반영하지 못한 점도 아쉬운 부분이다. 자발적 이유로 단독 이주한 경우와 맞벌이, 교육문제 우려 등으로 어쩔 수 없이 단독 이주한 경우 간에는 단독거주에 대한 수용도 차이가 있을 것이고 이것이 삶의 만족도를 평가할 때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지역별 특성, 기관별 성격, 단독이주사유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보다 정직한 연구모형 설계가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설문조사 설계 시 활용한 리커트 척도는 양적연구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척도임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회피하려는 응답자의 경향이 있다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 조절변수로 설정한 일-생활 균형 수준에 대한 답변을 “그렇다”와 “그렇지 않다”로만 설계하였다면 응답자의 일-생활 균형 인식을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고 일-생활 균형 조절효과의 통계적 유의성도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 참 고 문 헌

- 강종필, 윤지영(2017). 다층모형을 활용한 독거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생산적 여가참여와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15(5): 89-98.
- 강혜련(2006). 기업환경 변화와 가족친화 경영을 위한 정책제언, 가족친화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2006.2.3.)
- 구철회(2015). 서울시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현대사회와 행정」, 25(2): 281-300.
- 국회예산정책처(2016). 공공기관 지방이전사업 평가.
- 국회입법조사처(2018).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정착 실태와 향후 보완과제.
- 김경미(2017).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양립과 행복수준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난주, 권태희(2009). 기혼여성의 직장·가정 균형과 삶의 질의 상호관계, 「여성연구」, 76: 43-70.
- 김명희(2014). 여성건축가의 일-삶의 균형이 조직몰입 및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과 주관적 경력성공의 매개효과,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민곤, 박지형, 송용찬(2017).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31(4): 335-366.
- 김애련(2001). 노인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연희, 김기순(2002). 노인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과의 관계 연구. 「노인복지연구」 17: 157-189.
- 김유진(2016). 공공기관 지방이전 이후 일-생활 균형(WLB)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은영, 박정윤(2013). 가족의례유형에 따른 생활만족도와 가족역할중요도 인식에 관한 연구: 미혼남녀를 중심으로,

-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7(3): 105-124.
- 김의철, 박영신, 김명언, 이거우, 유호식(2000). 청소년, 성인, 노인세대의 차이와 생활만족도, 「한국시리학회지」, 5(1): 119-145.
- 김인회(2005).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정책효과 분석과 개선방향,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정책효과에 관한 토론회자료, 서울연구원.
- 김정운, 박정렬(2008).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 척도 개발을 위한 연구, 「여가학연구」, 5(3): 53-69.
- 김정운, 박정렬, 손영미, 장훈(2005). 일과 삶의 조화(Work-Life Balance)에 대한 개념적 이해와 효과성, 「여가학연구」, 2(3): 29-48.
- 마르코 폰 뮌히하우젠(2003). 균형잡고 살아라, 웅진닷컴.
- 민경선(2018). 위라벨 세대의 여가와 삶의 만족도, 「한국웰니스학회지」, 13(3): 377-388.
- 박기남(2004). 노년기 삶의 만족도의 성별 차이, 「한국노년학」, 24: 13-29.
- 박경환(2012). 기혼 여성관리자의 일가정 관계가 관리능력, 직무만족, 조직몰입, 그리고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대한경영학회지」 25(2): 879-905.
- 박선숙(2019). 세대별 삶의 만족도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세대 차이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0(3): 311-330.
- 박희봉, 이희창(2005).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요인 비교분석, 「한국행정논집」, 17(3): 709-728.
- 백지애, 최수찬(2006). 남성 주말부부 근로자의 가족역할갈등과 직무만족간의 관계에서 스트레스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19(4): 617-637.
- 서종수, 조희금(2010). 일-생활균형정도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구지역 비영리기관 종사자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95-104.
- 손영미, 김정운, 박정렬(2011). 중앙공무원의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조직



및 개인변인의 영향력 검증 연구, 「여가학연구」 9(1): 101-131.  
 송건섭·이곤수(2007).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지역경제과급효과: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1(4):  
 203-221.  
 송민경(2019).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공공기관의 업무 효율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양소남(2011). 일하는 어머니의 일-가족생활 양립을 위한 전략,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9(1): 103-126.  
 오민지, 안선민, 이수영(2017). 공무원의 세종시 이전유형과 직무만족의  
 관계에 대한 연구: 상사리더십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행정연구」 28(3): 83-111.  
 오현규, 박성민(2014). 일과 삶의 균형 정책이 조직 구성원들의 직무 및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력 연구: 공공 및 민간 조직 내  
 조직몰입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26(4):  
 901-930.  
 우재영(2013). 경제, 사회적 요인이 여성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농촌지도학회지」, 20(2): 555-585.  
 유홍준, 신인철, 정태인(2018). 일·여가의 변화와 행복 복지, 집문당.  
 이달곤(1990). 정치공동체와 개인의 자유. 「삶의 질」, 21C 행사자료.  
 이은아(2007). 중년기 남성의 가족 및 직업관련 변인과 생활만족도의  
 관계. 「한국생활과학회지」, 16(3): 547-562.  
 이인엽(2018).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일과 생활의 균형(Work&Life  
 Balance) 변화가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재완, 강혜진(2018). 워라벨과 삶의 만족: 세대 간 차이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2(3): 267-291.  
 이준상, 김향아(2017). 노인의 가족관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웰니스학회지」, 12(2):  
 27-36.

- 이춘호(2001). 수도권 신도시 거주자 주거 만족도 비교 분석, 「국토계획」, 36(6): 191-204.
- 이희미, 김영진(2009). 일과 삶의 갈등에 관한 실증적 연구: 수도권 사무관리직 종사자를 중심으로, 「산업노동연구」 15(1): 219-245.
- 임준홍, 홍성호(2014). 주거환경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충남지역을 사례로, 「주거환경」, 12(2): 137-152.
- 장소영(1998). 분당 신도시 주민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수정(2007). 일과 가족생활의 균형에 대한 쟁점들: 성(gender)과 다양성에 기초한 정책생산을 위한 제언, 「사회복지정책」 30: 219-238.
- 전명숙(2005). 연령과 삶에 대한 만족도, 「한국심리학회지」, 18(4): 87-108.
- 전명진, 문성원(2016). 노인의 삶의 만족도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수도권과 비수도권 거주노인 비교 분석, 「한국지역개발학회」, 28(2): 153-172.
- 정순돌, 김정원(2010). 은퇴한 배우자를 둔 중고령 여성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노인복지연구」, 49: 31-50.
- 정여진, 안정신(2010). 남성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가족관계 변인이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30(2): 535-550.
- 정예지, 윤정구, 김세은(2016).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이 직무 성과와 혁신 행동에 미치는 영향: 직무 만족과 생활 만족 간 긍정적 교호작용효과(Positive Reciprocal Effect)를 중심으로, 「경영학연구」 45(5): 1471-1499.
- 진장익, 진은애, 김단야(2017). 서울시 직장인들의 통근시간과 행복, 「국토계획」 52(2): 99-116.
- 천지은(2017). 어메니티 인식이 가족동반이주에 미치는 영향 연구: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어메니티 중요도·만족도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연희(2005). 거주형태가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성인간호학회지」, 17(3): 400-410.
- 최정혜(2002). 주말부부의 가족스트레스와 대처전략 및 가족건강도, 「한국가정관리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3-26.
- 최종명(2001). 청주시 대학생의 삶의 만족도와 관련 변인, 「한국생활과학회지」, 10(3): 253-262.
- 하혜수(1996). 도시정부의 '삶의 질' 결정요인분석, 「한국행정학보」, 30(2): 81-95.
- 한경혜, 장미나(2009). 기혼남녀근로자의 일·가족 균형과 관련요인: 남녀차이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21(1): 85-115.
- 황성호, 이희선(2019). 사회자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정주의식과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분석, 「한국공공관리학보」 33(2): 1-36.
- Campbell, A., Converse, P. E., & Rodgers, W. L.(1976).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Perceptions, Evaluations, and Satisfactions, Russell Sage Foundation
- Diener, E.(2009). Well-being for Public Policy. Oxford University Press.
- Frey, B., & Stutzer, A.(2002). Happiness and Economics; How the Economy and Institutions Affect Human Well-being, Princeton University Press.
- Galster, G.(1987). Identifying the correlates of dwelling satisfaction: An empirical critique, 「Environment and Behavior」 19(5): 539-568.
- Greenhaus, J. H., Collins, K. M., & Shaw, J. K.(2003). The relation between work-family balance and quality of lif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3: 510-531.
- Guest, D. E.(2001). Perspectives on the study of work-life balance, A discussion paper prepared for the 2001 ENOP symposium,

Paris, March 29-31.

- Haar, J. M., Russo, M., Sune, A., & Oller-Malaterre, A.(2014). Outcomes of work-life balance on job satisfaction, life satisfaction and mental health: A study across seven cultur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85(3), 361-373.
- Kofodimos, J. R.(1993). *Balancing Act*, Jossey-Bass.
- Marks, S. R., & MacDermid, S. M.(1996). Multiple roles and the self: A theory of role balanc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49: 24-33.
- Maslow, A. H.(1954). *Motivation and personality*, Harper & Row.
- Nettle, D.(2005). *Socio-economic status and subjective well-being*, Newcastle upon tyne: New Castle University.
- Quick, J. D., Henley, A. B., & Quick, J. C.(2004). The banancing act: At work and at home, 「Organizational Dynamics」 33(4): 426-438.
- Tausing, M., & Fenwick, R.(2001). Unbinding Time: Alternate Work-Schedules and Work-Life Balance, 「Journal of Famaily and Economic Issues」 22(2): 101-119.
- Thompson, J. A., & Bunderson, J. S.(2001). Work-nonwork conflict and the phenomenology of time beyond the balance metaphor, 「Work and Occupations」 28(1): 17-39.
- Veenhoven, R.(2002). Why Social Policy Needs Subjective Indicators. *Social Indicators Research Series*, 11(1): 33-45.

## [부록1] 설문지

### < 설 문 지 >

#### 설 문 조 사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모든 질문에 정답은 없으며, 여러분이 느끼고 생각하시는 바에 따라 솔직하게 응답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응답내용은 오직 순수한 학문적 연구 자료로만 활용되며,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내용은 익명으로 처리되며, 응답하신 정보는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귀하의 응답은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본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응답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20년 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지도교수 : 우 지 숙

연구자 : 이 혁 재

연 락 처 : [hjwarm77@gmail.com](mailto:hjwarm77@gmail.com)

설문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위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I. 다음 질문들에 대해 귀하의 생각이나 의견이 가장 일치하는 곳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현재 삶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나는 가족에게 신경을 많이 쓰지 못하는 편이다					
회사 일을 집에 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다					
퇴근 후에도 회사 일에 대한 걱정을 한다					
일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가족에게 푼 적이 종종 있다					
일 때문에 가족의 중요한 기념일(생일, 결혼기념일 등)을 잊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나는 나의 가정생활이 지금보다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					
나는 나의 가정생활이 불만족스럽다					
나는 일과 가정생활을 서로 조화시키는 것이 어렵다					
나는 나의 목표와 비전을 생각하고, 삶을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을 거의 갖지 못한다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 경력관리에 무관심한 편이다					
나는 자기개발에 거의 신경을 쓰지 못한다					
일 때문에 자기개발 계획을 실천하기 어렵다					
일에 치이다보니 나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잊게 된다					
일 때문에 피곤해서 자기개발을 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나는 자기개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나는 일과 자기개발을 서로 조화시키는 것이 어렵다					
일을 통해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가 힘들다					
나는 여가나 운동에 할애하는 시간이 적다					
나는 여가활동이나 건강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지 못한다					
영화나 공연을 본지가 꽤 오래되었다					
주말에는 피곤해서 여가활동을 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일 때문에 건강이 좋지 않은 적이 있다					
나는 나의 여가생활이 불만족스럽다					
나는 일과 여가생활을 서로 조화시키는 것이 어렵다					
주말이 재미없고 무료하다					

Ⅱ. 다음 질문에 대해 해당되는 부분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본사 지방이전에 따라 귀하의 주거지 이전 형태는?

- ① 기관 이전지역으로 혼자 이주
- ② 기관 이전지역으로 가족과 함께 이주
- ③ 주거지를 이주하지 않고 통근

2. 귀하의 근무지역과 생활근거지\* 간 이동에 소요되는 시간은?

(     )시간

\* 생활근거지: 본인의 결혼여부와 관계없이 가족·친지·친구들이 주로 거주하거나 본인이 오랜 기간 거주한 경험으로 가장 친밀함과 편안함을 느끼는 지역

\* 이동시간은 평소 자주 이용하는 교통수단(KTX, 버스, 비행기, 자가용 등) 기준

Ⅲ. 다음은 귀하가 현재 근무하는 지역의 거주환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부분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영유아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 선택의 폭이 다양하고 시설 및 교육 수준이 높다					
기초 교육기관(초·중·고등학교)이 가깝고 시설 및 교육 수준이 높다					
사교육(학원, 과외, 학습지 등) 선택의 폭이 다양하고 제공되는 교육 수준이 높다					
대중교통으로 접근 가능한 쇼핑시설(백화점, 대형마트 등)이 다양하며, 시설 및 환경이 쾌적하다					
대중교통으로 접근 가능한 문화시설(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등)이 다양하며, 시설 및 공연(전시) 수준이 높다					
레스토랑, 카페 등 외식 시설 선택의 폭이 다양하고 제공되는 음식 및 서비스의 질이 우수하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차로 1시간 이내 접근 가능한 유원시설(동물원, 놀이공원 등)과 스포츠 관람시설(축구, 야구 등)이 다양하다					
주거와 관련된 비용 지출이 적다					
방법이 양호하여 범죄 등에 대한 우려가 없다					
대중교통은 노선이 다양하고, 배차간격도 짧아 편리하다					
주행도로는 쾌적하며 주차가 용이하다					
소음이 적고 정온한 환경이다					
대기의 질(미세먼지, 냄새 등)은 양호하다					
상수도 수질은 깨끗하고 문제가 없다					
도보로 접근 가능한 근린공원, 산책로가 잘 조성되어 있다					
인근에 산, 강, 바다 등 자연환경이 아름답고 풍요롭다					
차로 1시간 이내 접근 가능한 종합병원(3차병원) 등 의료선택의 폭이 다양하며, 의료 수준의 질이 높다					
대중교통으로 접근 가능한 일반병원(2차병원) 등 의료선택의 폭이 다양하며, 의료 수준의 질이 높다					
도보로 접근 가능한 동네의원(1차병원) 등 의료선택의 폭이 다양하며, 의료 수준의 질이 높다					
매일 방문할 수 있는 헬스장, 수영장, 골프연습장 등 체육시설이 다양하며, 시설이 쾌적하다					



IV. 다음은 인구통계학적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부분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회사(본사)가 속한 혁신도시는?

- ① 부산 ② 대구 ③ 광주/전남 ④ 울산 ⑤ 강원 ⑥ 충북  
⑦ 전북 ⑧ 경북 ⑨ 경남 ⑩ 제주

2. 귀하의 성별은?

- ① 남성 ② 여성

3. 귀하의 연령은?

만 ( )세

4. 귀하의 결혼여부는?

- ① 기혼 ② 비혼(미혼, 독신, 이혼, 사별 등 포함)

5. 귀하의 자녀수는?

- ① 없음 ② 1명 ③ 2명 ④ 3명 이상

6. 첫째 자녀가 재학 중인 교육기관은? (자녀가 있는 경우만 작성)

- ① 미취학 ② 초등학교 재학 ③ 중학교 재학  
④ 고등학교 재학 ⑤ 고등학교 졸업 이상

-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부록2] 추가분석 결과(기혼자만 대상으로)

### 1) 일-생활 균형의 조절효과

[표5] 일-생활 균형의 조절효과 분석결과(기혼자만 대상으로)

변수	독립변수 투입			조절변수 투입			상호작용항 투입		
	B	$\beta$	t	B	$\beta$	t	B	$\beta$	t
(상수)	3.857		5.588	3.869		5.911	3.894		5.929
성별 <sub>여성</sub>	-.124	-.042	-.573	-.217	-.074	-1.048	-.220	-.075	-1.056
응답자 연령	.000	-.001	-.010	.002	.008	.113	.001	.005	.063
가족동거여부 <sub>동거</sub>	.118	.065	.758	.102	.056	.694	.068	.038	.459
mc생활근거치접근성(시간)	-.108	-.187	-2.310*	-.064	-.112	-1.423	-.080	-.139	-1.701
mc거주환경인식	.323	.207	2.854**	.245	.157	2.255*	.292	.187	2.628**
mc일-생활 균형				.415	.326	4.537***	.328	.258	2.454*
가족동거*일-생활 균형							.095	.056	.494
접근성*일-생활 균형							-.102	-.128	-1.601
거주환경*일-생활 균형							-.150	-.085	-1.179
F	3.767**			6.921***			5.141***		
R <sup>2</sup>	.097			.193			.213		
adj R <sup>2</sup>	.071			.165			.172		
$\Delta R^2$				.096***			.020		
VIF	1.023~1.429			1.049~1.430			1.084~2.750		

\*p<.05, \*\*p<.01, \*\*\*p<.001

더미처리 기준변수(0): 성별(여성), 가족동거여부(독거)

## 2) 일-가정 균형의 조절효과

[표6] 일-가정 균형의 조절효과 분석결과(기혼자만 대상으로)

변수	독립변수 투입			조절변수 투입			상호작용항 투입		
	B	$\beta$	t	B	$\beta$	t	B	$\beta$	t
(상수)	3.857		5.588	3.693		5.561	3.621		5.414
성별_남성	-.124	-.042	-.573	-.201	-.068	-.959	-.220	-.075	-1.048
응답자 연령	.000	-.001	-.010	.006	.030	.404	.008	.040	.539
가족동거여부_동거	.118	.065	.758	.046	.025	.304	.030	.017	.198
mc생활근거지접근성(시간)	-.108	-.187	-2.310*	-.082	-.141	-1.800	-.078	-.135	-1.705
mc거주환경 인식	.323	.207	2.854**	.274	.176	2.502*	.325	.208	2.864**
mc일-가정 균형				.330	.290	3.969***	.226	.199	1.877
가족동거*일-가정 균형							.238	.146	1.215
접근성*일-가정 균형							.006	.007	.084
거주환경*일-가정 균형							-.193	-.112	-1.511
F	3.767**			6.029***			4.411***		
R <sup>2</sup>	.097			.172			.188		
adj R <sup>2</sup>	.071			.144			.146		
$\Delta R^2$				.075			.016		
VIF	1.023~1.429			1.036~1.450			1.066~3.055		

\*p<.05, \*\*p<.01, \*\*\*p<.001

더미처리 기준변수(0): 성별(여성), 가족동거여부(독거)

### 3) 일-성장 균형의 조절효과

[표7] 일-성장 균형의 조절효과 분석결과(기혼자만 대상으로)

변수	독립변수 투입			조절변수 투입			상호작용항 투입		
	B	$\beta$	t	B	$\beta$	t	B	$\beta$	t
(상수)	3.857		5.588	3.936		5.902	4.032		6.032
성별_남성	-.124	-.042	-.573	-.197	-.067	-.938	-.197	-.067	-.928
응답자 연령	.000	-.001	-.010	.000	-.002	-.028	-.003	-.013	-.179
가족동거여부_동거	.118	.065	.758	.128	.071	.852	.061	.034	.399
mc생활근거지접근성(시간)	-.108	-.187	-2.310*	-.076	-.132	-1.664	-.116	-.201	-2.308*
mc거주환경 인식	.323	.207	2.854**	.271	.174	2.456*	.318	.204	2.842**
mc일-성장 균형				.291	.266	3.696***	.198	.181	1.678
가족동거*일-성장 균형							.078	.054	.468
접근성*일-성장 균형							-.108	-.178	-2.127*
거주환경*일-성장 균형							-.088	-.059	-.818
F	3.767**			5.643***			4.495***		
R <sup>2</sup>	.097			.163			.191		
adj R <sup>2</sup>	.071			.134			.149		
$\Delta R^2$				.066***			.028		
VIF	1.023~1.429			1.040~1.430			1.087~2.783		

\*p<.05, \*\*p<.01, \*\*\*p<.001

더미처리 기준변수(0): 성별(여성), 가족동거여부(독거)

#### 4) 일-여가 균형의 조절효과

[표8] 일-여가 균형의 조절효과 분석결과(기혼자만 대상으로)

변수	독립변수 투입			조절변수 투입			상호작용항 투입		
	B	$\beta$	t	B	$\beta$	t	B	$\beta$	t
(상수)	3.857		5.588	3.901		5.872	3.940		5.889
성별_남 성	-.124	-.042	-.573	-.178	-.060	-.849	-.164	-.056	-.776
응답 자 연령	.000	-.001	-.010	.000	-.002	-.022	-.002	-.008	-.107
가족 동 거여부_ 동거	.118	.065	.758	.123	.068	.823	.095	.053	.629
mc생활 근거지 접근성 (시간)	-.108	-.187	-2.310*	-.072	-.124	-1.562	-.082	-.142	-1.744
mc거주 환경 인 식	.323	.207	2.854**	.254	.163	2.300*	.274	.176	2.439*
mc 일- 여가 균 형				.301	.280	3.874***	.265	.246	2.380*
가족 동 거*일- 여가 균 형							.027	.018	.166
접근성* 일-여 가 균형							-.068	-.099	-1.230
거주 환 경*일- 여가 균 형							-.075	-.046	-.637
F	3.767**			5.891***			4.143***		
R <sup>2</sup>	.097			.169			.179		
adj R <sup>2</sup>	.071			.140			.136		
$\Delta R^2$				.072***			.010		
VIF	1.023~1.429			1.050~1.429			1.071~2.555		

\*p<.05, \*\*p<.01, \*\*\*p<.001

더미처리 기준변수(0): 성별(여성), 가족동거여부(독거)

## Abstract

# The Effects of Changes in Living Conditions caused by Relocation of Public Agencies on the Life Satisfaction -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Work-Life Balance

Lee, Hyuk Jae

Department of Public Enterprise Policy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ince Korean government's initiative of 'Relocation of Public Agencies' project in June 2005, 152 public agencies out of 153 have moved to "Innovation city" outside the Seoul metropolitan area. In this process, employees of public agencies have involuntarily experienced huge changes in their living conditions such as family life, residential environmen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effects of changes in living conditions caused by relocation of public agencies on the life satisfaction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work-life balance.

On-line survey was conducted to collect data, and then the SPSS was used for data analysis such as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frequenc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The dependant variable was set as life satisfaction; the independent variables set as changes in livings of living condition which include ① whether to live with family, ② access time to living base and ③ perception of residential environment; the moderating variable set as work-life balance which includes work-family balance, work-growth balance and work-leisure balanc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ll the independent variables except whether to live with family have significant effects on life satisfaction; access time to living base in a negative way and perception of residential environment in a positive way.

Second, work-life balance, the moderating variable, has a significant effect on life satisfaction. However, the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hanges in living condition and life satisfaction was not found. In the case of a sample of only married employees, however, some moderating effects were found.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attempted to focus on personal and subjective aspects such as changes in living conditions and life satisfaction of employees rather than policy effect or organizational management in the topic of relocation of Korean public agencies. The results of the study suggest that public agencies need to develop a compensation system, such as promotions or educational opportunities for workers in distant jobs, in order to improve the satisfaction of their lives. Also,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make continuous efforts to improve the living environment of “Innovation city”

**Keywords : Relocation of Public Agencies, Changes in living Condition, Life Satisfaction, Work-Life Balance**

***Student Number : 2013-22670***